

원성웅 목사, 1인 시위... “낙태 합법화, 국가적 저주 초래할 것”

3일 아침 국회 앞에서 시위하며 법안 철회 요구

‘악물 낙태 허용’과 ‘무제한 낙태’를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 국교회가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히며 거 리로 나섰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태여 연)은 이날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교계 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이번 국 회 회기에서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발의 없이 악물낙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행정부처의 움직임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국교회 지도자들은 국회 앞에서 “악물낙 태는 여성과 태아 생명 모두를 죽이는 시 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태여연이 주최한 이날 1인 시위에 원성 웅 전 서울연회 감독(옥동교회 원로)이 나섰다. 그는 “생명 경시 풍조가 심각하 다”며 “목회자로서 만삭낙태 합법화 시도 를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 는 6주면 심장박동이 들리고 10주가 되 면 사람의 형태를 갖추며, 22주에는 조산 해도 생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생명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분으로 제 거하는 것은 살인행위이자 인륜 파괴”라 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상황 속에서 만삭낙태에 보험 적용까지 검토되는 현실을 지적하

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감독은 “여성 의 인권 신장은 중요하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권이 아니라 생명 존중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뿐 아니라 인간 기본 윤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 는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국가는 심각 한 저주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영 전도사(감신대 신학대학원)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 여론을 전하며 “대다수 여학생이 태아 생명을 존중하고 있으며, 만삭낙태는 반성경적반인륜적이라 는 인식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는 “극소수 학생들의 편향된 이념적 주장 때 문에 신학생 전체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태아 생명 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양규 한동대 석좌교수는 1년 전 제 도화된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성 과를 소개하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이 가능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7월 국회에 상정된 남인순·이수진 모자보건 법 개정안이 국민적 반발로 회부되지 않 은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원민경 여가부



“생명 경시 풍조 심각하다!” 1인 시위에 나선 원성웅 목사의 모습. ©노형구 기자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악물낙태 도입을 촉구하면서 “2019년 헌법재판소 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가 사실상 비범죄화된 것”이라고 인 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 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 한제 결정은 낙태죄 전체 를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전면 비범죄화한 것이 아니라, 형법 조문 중 특정 부분만 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 한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당시 ‘임신 초기 기간’과 ‘여성 자기결정권



(왼쪽부터) 제양규 교수, 안석문 목사, 원성웅 목사, 이찬영 전도사, 원정하 선교사, 서윤화 목사. ©노형구 기자

에 대한 압력적 고려를 국회에 요구했을 뿐이지, 낙태 전 기간을 포괄해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특히 임신 중·후기 낙태, 만삭 낙태, 악물 낙태 등은 한제 결정의 보호 범위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악물낙태가 안전하다는 홍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내 조사에서도 악물낙태 경험자의 70%가 추가 수술이 필요했고, 정신적 부작용과 악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향된 이념에 따라 낙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며 “태아여성국민연합은 법 개정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혁 목사(더라이프)는 “악물낙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다음세 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교회

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세 대를 섬기는 목회자라면 진리를 양보 없이 선포해야 한다”며 더 많은 교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인도에서 14년간 사역한 원정하 선교사는 “대한민국에서 매년 3만 명의 아이 가 낙태되는 상황을 보며 생명을 더욱 쉽게 죽이자는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간을 이유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 “최근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강간 임신은 낙태 사유의 0.9%에 불과하다”며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생명을 살해할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 고 이 또한 형법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원 선교사는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저출산 정책을 내걸면서 태아생명을 죽이는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모순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주최한 태아여성보 호국민연합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 하겠다”며 “생명 경시 사회를 막기 위해 교 계와 시민과 연대해 활동을 지속할 것”이 라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방송의 공정한 심의 대신 차별금지라니, 어불성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사 진>, 이하 언론회)가 3 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 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방송의 공정한 심의 대신 차별금지 조 항을 넣으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FIM,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 개최 >> 7면

한남대 실례스트합창단,
'메시아' 정기연주회 >> 23면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난 11월 13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개정안이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의 공정 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 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것 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방심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을 “잘못되거나 편향된 방송물을 바로 잡는 공정성 심의”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기능을 삭제하는 대신 “똥판지처럼 차별 금지법에 나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방송법 제33조 제2항에서 기존 “양성평등에 관 한 사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인종·민족·지역·종교 등 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조 변경하여 “포괄적 차별금 지 조항을 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지금 헌선 정치권에서는 포 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을, 온갖 조례 와 법률 개정으로 총출동해 역차별의 그 물망을 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 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공정 성 심의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 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 들”이라고 반박했다.

논평은 또한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 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 적”이 제기된다는 개정안의 실령에 대해, “힘이 센 정치 권력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방송 현실에 대해 “대형 공영방송사 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시청률을 한

자리 자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책임 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문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 특 정 정파에 치우침과 쏠림 현상이 현저하 다”고 지적하며, 입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송심의의 맡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한껏 낮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고 주장했다. 또 “정치 권력자들은 모든 국가 기관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 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 기관 의 고유한 역할이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 “비상계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검으 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법률 개정은 오류가 일어나 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엄격 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판문점에서 ‘남북평화 통일기도회’ 열린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 공동 주최

사단법인 민족 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태희 목사)



와 2027 8천 만 민족복음화대 성회 조직위원회 는 오는 12월 4 일 오전 10시 30 분, 경기도 파주 시 판문점교회에서 ‘북녘방 복음화 & 남 북평화통일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도회는 2027년 예정된 8천만 민 족복음화대성회의 핵심 사전 행사다. 주 최 측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국 교회와 함께 남북의 영적 회복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이태희 목사(총재·설 교), 장사무열 목사(상임대회장·환영사), 강복렬 목사(대회장·격려사), 김현중 목사 (준비위원장), 박창은 목사(사회), 전영규 목사(축사) 등이 참여한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측은 “한반도를 넘어 8천만 민족에게 복음의 빛이 다시 밝아지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기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2027년 동안 전국 순회 기 도회, 통일선교 포럼, 해외 연합기도집회 등 장기적인 ‘민족 복음화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으며, 이번 판문점 기도회가 그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진영 기자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현대자동차연구소 (착공)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예정)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전자상가 철거중)

GRAND OPEN
선착순 분양

호창공원앞역

용산역

1 용산역, 4 신용산역, GTX-B (예정), KTX, 경의중앙선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렛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러 / 25cm 더 높은 층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차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시 기회 없습니다

분양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

송정미·신현준 등 12명, 2025 대한민국기독교예술대상 수상

여의도침례교회에서 시상식 열려

2025 대한민국기독교예술대상 시상식이 최근 여의도침례교회(담임 국명호 목사) 교육관 글로리아 홀에서 개최됐다.

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회장 정영숙 권사)가 주관한 시상식은 기독교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매년 각 예술 분야에서 활약한 기독교 문화예술인들을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송정미 사모(숭실대학교 음악원 교회음악과), 영화배우 신현준 집사 등을 비롯해 각 부문에서 12명이 수상했다.

행사는 예배,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황학만 목사의 사회로 드러졌다. 이규곤 목사가 개회기도를 드렸으며 유명애 권사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정성구 목사(전 총신대 총장)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로마서 13: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세상에는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 물질을 근원으로 보는 유클

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물의 시작과 목적을 설명하는 신본주의 세계관이 존재한다. 오늘날 많은 사회와 문화는 인본주의와 유클주의의 영향 아래 놓여 있으며,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거나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교육, 예술, 사회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좌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우리의 예술, 문화, 삶의 모든 영역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다. 세상이 인본주의와 유클주의로 흔들리는 시대라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붙들고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명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가 마무리 됐으며 이어진 시상식은 피기준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을



2025 대한민국기독교예술대상 시상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수상자들의 모습. © 최승연 기자

했으며 김소엽 권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총연합회 창립회장 겸 전임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김 권사는 "세계가 K-문화를 주목하는 지금, 그 중심에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빈 공간은 동시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 하나이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공동체 속에서

이미 다양한 기독교 문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새로운 언어와 형식, 새로운 세대를 향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예술적 접근과 현대적 표현 방식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기독교 문화는 경쟁이 아닌 융합의 관점에서 K-영화, K-드라마, K-음악 등 플랫폼 중심의 세계 문화 생태계 안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작가들이 각 분야에서



정성구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김소엽 권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있다. © 최승연 기자

콘텐츠를 창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 문화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 인간 회복, 관계의 치유와 평화, 약자를 향한 연대, 생명 존중과 같은 가치다. 이러한 주제들이 예술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때, 세계 문화는 더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 속에서 기독교 예술인들의 역할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영숙 회장이 김소엽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인사말 및 심사결과 보고를 했다.

정 회장은 "한국 기독교 문화예술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언어이며, 어려웠던 시절 교

회를 중심으로 문화가 꽃피었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인은 많아졌어도 기독교 문화가 일상의 삶에 깊이 스며들지 못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이제 예술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다시 세상 속에 퍼뜨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문화가 뿌리내려 주님께는 예배가 되고 세상에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작품과 헌신으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기독교 예술대상을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명숙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장봉생 총회장 “토마스선교사기념관 설립에 함께해 달라”

예장 합동 장봉생 총회장(사진)이 2일 담화문을 내고 “토마스선교사기념관 설립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총회장은 이 담화문에서 “2026년은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전체에 깊은 의미를 지닌 해”라며 “모르테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1839~1866)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지 1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토마스 선교사는 개혁주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놓은 순교자였다”며 “그는 1865년 백령도 두무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며, 이듬해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민족 복음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총회는 이 귀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토마스선교사기념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총회장직속 기념관설립위원회를 조직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으며, 이는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

사를 통해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선명히 드러내고 계승하는 시대적 과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총회장에 따르면 합동 측은 1926년 ‘토마스 순교 60주년’을 기념해 토마스기념회를 조직하고 1932년 평양에 기념교회를 설립했다. 또한 제5회 총회에서 ‘순교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며 그 결의 정신을 이어왔다.

그는 “이 전통은 백령도를 중심으로 귀한 결실들을 맺어 왔다. 총회는 토마스 선교사 순교 이후 세워진 백령도의 모든 교회가 교단 소속 교회임을 깊이

감사하며 백령도를 ‘한국기독교의 섬’으로 지정(104회 총회)하고, ‘토마스 선교사 백령도 성경 전래 160주년 기념비’를 세우는(109회 총회) 등 교단의 빛나는 유산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교회가 예배당을 세울 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헌신하듯, 기념관 설립에도 ‘백돌 한 장을 올리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이 사역을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이어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민족대표 33인 중 16인’ 기독교 독립운동 역사와 의미 조명

독립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간 기획전시 ‘한국 독립운동과 종교’의 마지막 전시인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겨레의 집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독교인들이 민족독립에 헌신한 역사와 그 의미를 조명하고, 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만남과 수목, 독립운동의 토대를 일구다〉에서는 근대 전환기 기독교가 유입되며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전하는 매개로서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음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자료는 고종이 하사한 ‘배재학당 헌관(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제공), 근대 지식인들이 기독교 서적 등을 탐독한 내용이 담긴 ‘한성감옥 도서대출대장’ 등이다.

2부 〈신앙으로 하나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하다〉에서는 1919년 31운동에서의 기독교계의 역할과 독립운동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자료는 ‘31독립선언서(김신량 기증), ‘유관순의 이화학당 재학시절 사진(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제공), ‘평양 숭실학교 태극기(숭실대학교 한국



기독교박물관 제공)이다. 3부 〈해의 한인사회, 국경을 넘어 연대하다〉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어진 기독교계의 활동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자료는 북간도에 형성된 한인 자치 마을인 명동촌의 ‘막새기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가 미국 기독교회에 보낸 호소문 등이다.

4부 〈선민의 길, 억압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다〉에서는 일제 말 거세지는 화유와 압박 속에서도 신사참배 강요와 전쟁 협력 요구에 끝까지 저항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전시한다. 주요 전시자료는 ‘조지 새넌 맥퀸이 신사 참배 거부 의사를 밝힌 편지, 일제 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하다 순교한 ‘주기철의 평양신학교 사경회 기념사진’ 등이다. 김진영 기자

강릉소망감리교회, 시낭송가 3인 시인 등단

문학아카데미 첫 결실... 피기준 장로 재능기부 돋보여

강릉소망감리교회(담임 유동조 목사)에서 2년간 시를 배우고 나누어 온 세명의 시낭송가가 정식 등단했다. 김지연(56), 김남숙(52), 안진순(51) 씨가 월간 순수문학 12월호 시부문 신인상에 당선

되며 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호에서 김지연 씨는 「매화의 미소」 외 4편, 김남숙 씨는 「아버지의 발원지」 외 4편, 안진순 씨는 「겨울 속 여자」 외 4편이 각각 선정됐다. 세 사람의

시상식은 오는 15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린다. 세 사람은 모두 강릉소망감리교회가 운영해 온 ‘문학아카데미’의 첫 열매다. 이들은 2022년과 2023년 ‘한국어사랑제계시낭송대회’ 입상 후 공식 시낭송가 인증을 받고 활동해 왔고, 이후 소망감리



(왼쪽부터) 김지연 시인, 김남숙 시인, 안진순 시인
교회에서 문학박사 피기준 장로(시온성 감리교회)의 지도를 받아 1년 동안 시낭송 교육을, 이어 2년 동안 매주 시 창작 수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백선영 기자

제53회 목사고시



모바일 청원서 접수를 환영합니다
◀QR코드 스캔후 목사고시 응시자격 안내 및 청원서 다운로드

청원서 접수기간

2025.11.24(월)~2026.1.30(금)

- 1. 30(금) 제53회 목사고시 청원서 접수마감
- 2. 23(월) 목사고시 필기시험·인성/심리검사
- 3. 3(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3. 16(월) 목사고시 면접
- 3. 23(월) 최종 합격자 발표
- 4. 13(월)~15(수) 제53회 목사안수자 연수교육
- 4. 20(월) 제53회 목사안수식

문의 02)3673-1329 / pastor@kaicam.org / www.kaicam.org



KAICAM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외로27길 7-11(양재동) 대승빌딩 2층 T. 02)3673-1323~5, 9 F. 02)577-1350

함께하는 사람들 | 목사안수식 안수위원



김상복 목사
KAICAM 고문
햇빛트리·토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송웅필 목사
KAICAM 연합회장



김승욱 목사
KAICAM
합동부교회 담임



마평택 목사
KAICAM
새문교회 담임



이평재 목사
KAICAM
갈보리교회 공로목사



김윤희 목사
KAICAM
햇빛트리·토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정용열 목사
KAICAM
아산대학교 총장



김양재 목사
KAICAM
우리들교회 담임



박성민 목사
KAICAM
CCC한국대성신교회 대표



한 홍 목사
KAICAM
새문교회 담임



이용조 목사
KAICAM
갈보리교회 담임



조정민 목사
KAICAM
배이직처 담임



전기철 목사
KAICAM
강남세사교회 담임



홍민기 목사
KAICAM
라이프하우스교회 담임



브라이언 박 목사
KAICAM
Just Jesus 대표



정용비 목사
KAICAM
더온누리교회



김대조 목사
KAICAM
주남기쁨의교회 담임



파조진 목사
KAICAM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데이미드 황 목사
KAICAM
유일교회 담임



오창권 목사
KAICAM
대림교회 담임



서영희 목사
KAICAM
한중사랑교회 담임



조애한 목사
부천 갈보리교회 담임



정연호 목사
이스라엘
홍익대학교 부총장



김종웅 목사
KAICAM
실과회복이있는교회 담임



황재우 목사
KAICAM
십자수공동체교회 담임



유임근 목사
KAICAM
KOSTA 국제총무



전옥표 목사
KAICAM
송안교회 담임



황규업 목사
KAICAM
세인교회 담임



선종철 목사
KAICAM
하·비전교회 담임



스티브 장 목사
햇빛트리·토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박형진 목사
햇빛트리·토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정성국 목사
아산대학교
신대원장·신약학 교수



케네스 매 목사
KAICAM
NGI 대표



유정모 목사
햇빛트리·토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학 교수



김의장 목사
햇빛트리·토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신숙구 목사
햇빛트리·토신학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신성욱 목사
아산대학교
신약학 교수



차준호 목사
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



박태수 목사
한국성서대학교
조직학 교수



김선일 목사
웨스턴대학교
실천학 교수

수단 기독교 개종자, 우간다 집에서 쫓겨나

신앙을 이유로 가족에게 배척당한 후
남수단으로 돌아가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생활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수단에서 피난한 한 청년이 우간다에서 일자리를 얻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사건은 난민과 종교 자유 문제의 민감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수단 다르푸르 출신의 에삼 주마 압텔 크림(Essam Juma Abdelkreem)은 2024년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에서 처음으로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후, 남수단으로 이동하며 1월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는 6개월간 제자훈련을 받은 뒤 6

월 18일 세례를 받았다고 현지 복음주의 전도자가 전했다.

이후 압텔크림은 우간다 북부 브웨알레(Bweyale) 난민 캠프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무슬림인 삼촌의 요청으로 캄팔라에 있는 상점에서 일을 돕게 되었다. 압텔크림은 “사업이 잘 되었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단 과학기술대학에서 동물생산학을 전공한 27세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의 삼촌 부인이 압텔크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수행해야 하는 이슬람 기도를 중단했고, 꾸란을 읽지 않으며 모스크 예배에도 참석하

지 않았다. 결국 부인은 그의 가방을 몰래 뒤져 성경과 제자훈련 수료증을 발견했다.

압텔크림은 “곧바로 삼촌에게 보고되었고, 삼촌은 감정적으로 동요하며 즉시 삼점과 집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그는 10월 25일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남수단으로 돌아가 기독교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는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고, 친구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수단 홍해 연안의 포트수단에서는 기독교인 교회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26일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무슬림 남성이 차량에서 내려 페인트를 들고 수단장로회복음주의교회 포트수단 지점 벽에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라는 아랍

어 문구를 적었다. 영상에는 다른 붉은 글씨 문구도 함께 찍는 모습이 담겨 SNS를 통해 퍼졌다.

이에 대해 수단 기독교 지도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필립 압텔마시 SPEC는 이번 행위를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테러행위로 규정하며, 포트수단과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 존재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SPEC의 유시프 마타르 코디 목사도 교회와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며 보안 당국과 시민들의 경계를 촉구했다.

수단 인구의 약 93%가 무슬림이며, 기독교인은 2.3%에 불과하다. 국제 기독교 박해감시 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2025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수단은 5위를 기록했다.

최승연 기자

한국VOM “中 장 샤오지에 목사, 12년 복역 후 석방”

중국 허난성에서 신앙 활동을 이유로 구속돼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장 샤오지에(Zhang Shaojie) 목사가 지난 11월 16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한국 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장 목사가 경찰 호송 아래 난려한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VOM은 그동안 장 목사를 위한 국제적 편지 쓰기 캠페인을 주관해 수감 기간 동안 격려 편지가 꾸준히 전달되도록 지원해 왔다. 장 목사는 한국VOM을 통해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 풀려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석방 이후에도 중국 당국의 감시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VOM에 따르면 당국은 장 목사 자택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외부인 접근도 제한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장 목사가 석방 후에도 감시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장 목사는 2013년 지방 정부와의 토지 분쟁 이후 체포돼 ‘공공 질서 방해’를 위한 군중 소집,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강제노역, 다수의 교도소 이송, 가족 면회 제한 등 가혹한 처우를 겪은



장 샤오지에 목사 ©한국VOM

것으로 전해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장 목사 가족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며, 신앙 때문에 수감된 이들을 격려하는 편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형구 기자

Mission Australia 2025 청년 조사, 경제적 압박과 정신 건강 문제 부각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Mission Australia가 11월 27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2025년 청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청년들은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으며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이를 국가적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는 14세에서 19세까지 17,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국제 기독교 자선단체 Mission Australia의 연례 조사 결과, 호주 청년들은 경제적 압박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영향에 대해 점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담(64%)과 함께, 정신 건강(29%),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27%), 주거 및 노숙(25%)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로 꼽혔다.

생활비 부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2023년 31%였던 응답 비율은 2024년 53%로 상승했으며, 해당 질문이 도입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Mission Australia의 CEO 사론 캘리스터는 생활비 상승이 청년들의 삶과 세계관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캘리스터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필수품을 구매할 돈조차 부족해지는 상황이 정신 건강과 삶의 전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기록은 결코 깨지고 싶지 않았던 수치라고 밝혔다.

주거 문제와 노숙도 청년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다. 지난 해 여름, Mission Australi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 청년의 10명 중 1명이 노숙 경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는 2023년 청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4년 8월 1일 발표된 ‘The Unfair Divide’ 청년 노숙 보고서에 포함됐다.

조사 당시 15세에서 19세 사이의 노숙 경험 청년들은 가족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일정한 주소 없이 생활하거나,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에서 거주하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노숙 경험 청년들이 안정적인 가정 환경의 청년들보다 정신 건강 문제(41% 대 13%), 외로움(47% 대 18%), 사회 적응 문제(46% 대 26%), 재정 문제, 가족 관계의 긴장(34% 대 5%)

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조사에서도 주거와 노숙 문제는 여전히 청년들에게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됐다. 2022년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한 청년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 캘리스터는 “청년 4명 중 1명이 주거와 노숙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경험하는 사례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신 건강 문제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응답자의 39%가 정신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했으며, 약 19%는 조사 직전 몇 주간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캘리스터는 “스트레스와 불안이 교육, 직장,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들은 문제 확대 전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받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Mission Australia는 최근 조사에서 일부 정신 건강 지표가 지난 2년간 개선된 점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외로움과 심리적 고통이 감소했고,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스터는 “청년들이 삶의 일부를 공유해준 것에 감사하며, 조사는 호주 청년

호주 청년, 생활비 부담 최우선 고민

들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경제적 압박, 정신 건강 문제, 차별 경험 등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청년들이 경험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Mission Australia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학교, 지역사회, 가족들이 청년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최승연 기자

전 MLB 스타 대럴 스트로베리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고백하며 신앙적 변화 과정 강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메이저리그(MLB)에서 여덟 차례 올스타에 선정된 대럴 스트로베리(사진)가 최근 자신이 받은 사면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뤄진 자유”라고 고백했음을 최근 보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사면을 내렸던 순간을 회상하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실수 없는 인도”였다고 강조했다.

CP는 스트로베리가 최근 오를라호마주 털사에서 위치한 세리던교회 74주년 예배에서 설교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 매츠를 비롯해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 등에서 활약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지금은 목회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나에게 사면을 주셨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로베리에게 1995년 소득세 탈

세 혐의로 인한 전과를 사면했다. 당시 그는 3년의 보호관찰과 6개월의 자택 구금,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받았었다. 스트로베리는 “여러 행정부가 사면을 검토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선택해 사명을 이루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없다. 나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전했다. 스트로베리는 이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구절을 요약해 전하며, 이번 사면이 신앙의 변화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스트로베리는 사면 발표 당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당시 상황을 상세히 남겼다. 그는 “전날 오후 4시 37분, 수술 후 회복 중이던 아내를 돌보며 잠시 누워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워싱턴 D.C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표시가 떴서 받았는데, ‘스트로베리 씨, 대통령께서 당신과 통화하길 원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잠이 확 달아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스트로베리

의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곧이어 “당신의 과거를 완전히 사면한다”고 말했다. 스트로베리는 “그 순간 아내가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내 과거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경험에 정치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는 한 남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친구를 깊이 생각해준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함께 찍은 사진들도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 삶의 이 부분을 마무리시켜주고,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깨끗하고 자유롭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적었다.

미 법무부 사면국에 따르면 스트로베리는 트럼프가 같은 날 사면한 7명 중 한 명이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스트로베리는 죄를 인정하고 세금을 환급했으며, 이후 금주 생활을 유지하고 강한 기독교 신앙 속에서 플로리다의 중독 회복 센터 설립에도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구 선수로서의 화려한 경력을 접은 스트로베리는 지난 2013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최승연 기자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선교사 가족과 함께한 따뜻한 추수감사”

선테모 초청, 15가정,
40여 명의 선교사와 자녀들 참석

선테모는 2017년부터 매해 추수감사절과 연말 이면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해 따뜻한 식탁 교제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1월 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때 LA 지역 교회들에는 추수감사절에 선교사 가족을 초청해 격려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모임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의 초청 모임은 선교사들에게 더욱 귀한 쉼이자 잊지 못할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총 15가정, 40여 명의 선교사와 자녀들이 함께했으며, 오랜만에 웃음과 교제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다. 선교지의 낯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해온 이들의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격려가 깊이 담겨 있었다.

특별히 올해 모임은 풀러신학교 동문이신 원영호 목사의 꾸준한 후원과 따뜻한 섬김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원 목사는 단발성이 아닌, 해마다 이 초청 모임을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힘있게 뒷받침해 왔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선교사들



선교사 가족들을 초청해 따뜻한 식탁 교제의 시간을 나눴다. ©토마스 멍 기자

을 위해 기꺼이 후원했다. 또한 사모들과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이 담긴 넉넉한 용돈을 직접 준비해 나누며, 선교사 가정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전했다.

신촌식 선교사는 이날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신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을 선물로 전하며, “원영호 목사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 덕분에 많은 선교사 가정이 매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모임 동안 선교사들은 잠시 선교지의 무거운 현실을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며 쉼을 누렸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놀며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신 선교사는 “해마다 이어지는 이 초청 모임이



신촌식 선교사는 이날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자신의 신간 『조나단 에드워즈의 선교신학』을 선물로 증정했다. 사진 왼쪽은 원영호 목사. ©토마스 멍 기자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위로의 자리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의 이유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테모는 신 선교사가 2017년부터 풀러에 안식년으로 오신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테니스를 통해 회복과 힐링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시작한 모임으로, 현재는 선교사 가족을 섬기는 멤버케어 사역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신 선교사는 GMS 미국서 부지부 지부장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며,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전 미주장신대) 선교학과 박사원 교수로 섬기고 있다.

토마스 멍 기자

코미디 듀오 ‘스킷 가이즈’, 30년 우정 뒤로하고 각자의 길로

“결혼과 사역의 기준 위반”...

토미 우다드, 충격 당고
‘231 컬렉티브’로 새 출발 예고



The Skit Guys. ©The Skit Guys

미국 기독교계의 코미디 듀오 ‘스킷 가이즈(The Skit Guys)’가 공동 창립자 에디 제임스(Eddie James)의 ‘도덕적 과실’로 해체를 선언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임 배경과 남은 멤버 토미 우다드(Tommy Woodward)의 향후 계획이 공개됐다.

◆“결혼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 요구 위반”
사역팀은 성명을 통해 제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역 단체의 기준과 결혼 및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위반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디모데전서 3:1-7)”며 지도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들은, 제임스와 그의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 줄 것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사역팀은 제임스가 출연한 기존 콘텐츠 일부를 삭제하고 전체 목록을 검토 중이다. 우다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이 일은 하나님을 담화하게 하지 못했다. 내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날들을 지켜주셨다”고 신앙을 고백했다.

◆새로운 사역 ‘231 컬렉티브’ 출범
우다드는 ‘스킷 가이즈’의 이름을 뒤로하고 ‘231 컬렉티브(231 Collective)’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단체명은 출애굽기 3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막 기구를 만들었던 장인 ‘보살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우다드는 “우리의 동기는 수익이 아니라 부흥과 계시”라며, 어린이 프로그램, 리얼리티 쇼, 서적,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무료로 콘텐츠를 보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0만 달러(약 7억 원)의 초기 자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를라호마주에서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한 스킷 가이즈는 복음주의권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 제작팀으로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기 전 성경 이야기’(Bedtime Bible Stories) 등을 통해 고립된 가정들에 웃음과 위로를 전했다.

“웃음은 장벽을 허물고 진리가 들어오게 한다”는 철학을 공유하며 2021년에는 우정에 관한 책 ‘베이크인 냄새가 나(Smells Like Bacon)’를 함께 출간하기도 했던 두 사람의 결별은 팬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역팀 웹사이트는 이번 사태가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우정에 “해아릴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현재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대로 치유와 용서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32회 학생음악회... 하프시코드 연주로 바로크 특유의 색채 표현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 평강교회(담임 송금관 목사)에서 제32회 학생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올해 음악회는 ‘The Baroque Virtuoso(바로크 시대의 거장)’라는 주제로, 비발디, 바흐, 헨델 등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을 본교 음악과 학생들의 지휘에 맞춰 연주했다.

특히 이날 무대에서는 하프시코드(Clavichord/Harpsichord)가 특별히 준비되어 바로크 음악 특유의 색채와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살려내며 관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학생음악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임성진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생음악회는 음악과 학생들의 재능과 기량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다문화 도시인 LA 지역사회에 예

술로 봉사하는 소중한 장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백성아, 오정록, 박보미, 김은정, 김지은, 에스더 김 등 본교 음악과 학생들이 바로크 시대의 다양한 작품을 수준 높게 연주하며 매 곡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소프라노 최윤정, 테너 오정록, 그리고 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월드미션 바로크 챔버과 이어(Baroque Chamber Choir)가 함께 무대에 올라 풍성한 하모니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음악회의 감동을 더했다.

김민선 기자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고난 넘어서는 감사, 인생을 바꾼다”



은혜한인교회가 2025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찬식을 거행했다.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한기홍 목사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감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감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소유와 자녀를 잃은 고난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신앙에 대해 전했다.

그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감사는 우리 삶의 관점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한다”며 “감사가 충만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거행됐다.

김민선 기자

패서디나의 밤 밝히는 ‘시장 연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12월 5일 개최



오는 12월 5일 금요일, 패서디나 시청 앞 광장에서 ‘연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린다.

빅터 M. 고르도(Victor M. Gordo) 패서디나 시장과 함께하는 이 행사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공식 트리 점등은 오후 6시 정각, 고르도 시장의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식 점등 시간에 맞춰 인파가 몰릴 수 있으니, 일찍 도착해 시청에 주차하고 좋은 관람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최측은 이 행사를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

램을 준비했다. 지역 예술가들이 공연하며, ▲Afterschool Adventures Cheer & Dance ▲Outspoken Dance Company ▲Rosebud Academy Choir ▲WOW! On the Move ▲Elements Dance Space 등 다양한 팀이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아모리 예술 센터(Armory Center for the Arts)’에서 무료 공예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패서디나 소방서는 소외 계층 아동들을 위한 ‘Spark of Love 장난감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방문객들에게 “여유가 된다면 포장되지 않은 새 장난감이나 스포츠 용품, 상품권 등을 가져와 소방관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역사 속 사례에서 배우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변증 방안은?”

FIM국제선교회,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 개최

FIM국제선교회(이사장 최광영 목사, 대표 유해석 목사)가 최근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를 열고, 오늘날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 변증과 복음 선교, 선교적 대화 등을 위해 역사 속 사례에서 지혜와 교훈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1일 종신대학교 주가철기념홀에서 FIM 창립 29주년 기념예배 후 2부 순서로 열린 세미나에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리더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강재춘 박사(FIM 선교사, 쿠웨이트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김요한 박사(FIM 선교사,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객원교수), 유해석 박사(FIM 대표, 종신대 선교대학원 전공주임교수)가 각각 강의를 전했다.

◇강재춘 박사, 인도네시아 이슬람화 이끈 수피 상인들 사례 통해 현대 BAM 사역 제언

강재춘 박사는 ‘이슬람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통한 다와에 관한 고찰 -마울라 나 말릭 이브라힘의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 박사는 ‘인도와 무역로를 따라 각 항구와 주요 도시가 이슬람화된 중심에는 바로 수피 상인들이 있었다’며 “인도양 무역로를 통해 진행된 동남아시아,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와라의 이슬람 확산은 ‘경제적 선교’이며, 수피즘(이슬람의 신비주의 분파)에 근거한 이슬람 상인들의 종교적 상업윤리가 이슬람 ‘다와(이슬람교 전도)의 기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자리하게 되는 초석을 마련한 인물인 마울라 나 말릭 이브라힘(Mulana Malik Ibrahim)은 단순한 이슬람 전도자나 무역 상인이 아니라, 자와의 중요 항구인 그리스 항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받은 항만장으로서, 제도적 권위를 부여받은 통치자였다”며 “그의 영향력 아래 수피 상인들이 자와 북부 여러 항구에 정착하고 드나들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뱃산트렌(이슬람 기숙학교)을 설립하여 더 많은 이슬람 상인, 이슬람 선교사를 훈련시켜 그들의 영향력을 확산시켜 나갔다. 더 나아가 기록물을 남기기 어려운 시기에 이슬람의 교리와 선교적 메시지를 담은 비문을 여러 지역에 남겨 다와를 위한 중요한 텍스트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근동 지역에서 이슬람은 전쟁을 통해 전파됐지만, 동남아시아(해양 실크로드)와 중앙아시아(실크로드) 지역에서 이슬람 선교는 이치럼

비즈니스 선교(BAM)에서 시작된 것”이라 고 설명했다.

강재춘 박사는 인도네시아 대순다 열도 지역 및 주변 도서 지역에서 16세기 초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의 경제 활동도 소개했다. 강 박사는 포르투갈 상인 곤잘로 벨로소의 활동,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활동에 대해 “이들의 경제 활동은 선교 활동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상인들의 선교적 활동이 있어도 영향력이 미미했다”며 “때로는 선교의 길을 막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인도양 무역 네트워크 위에서 진행된 기독교 상인들과 이슬람 상인들의 경쟁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이슬람 상인들의 승리로 끝났다”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국주의 경제체제가 종식된 후, 동남아시아와 특히 자와 섬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제 및 종교의 주도권은 완전하게 이슬람에게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현대 기독교 선교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는 비즈니스 선교(BAM)가 마울라나 말릭 이브라힘을 비롯한 이슬람 상인들의 다와의 방법으로부터 도전받고 배우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슬람 상인들에게 비즈니스와 선교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사업 자체가 다와였고, 그들이 확보한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다와를 위해 사용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재춘 박사는 기독교 비즈니스 선교의 발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비즈니스 선교를 위한 산업-선교 협력을 통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전문적인 지식과 현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시니어 발굴과 적극적인 전문인 사역자로서의 파송, 산업-학계-선교 협력을 주도할 선교 비즈니스 센터 설립과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선교 경영학과 개설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요한 박사 “안디옥 바울의 기독교 변증 시도는 오늘날 선교적 대화의 출발점 제시”

김요한 박사는 ‘중세 이슬람 지배하 레반트 기독교의 변증과 선교적 함의 -안디옥 바울과 알-카라피의 논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 박사는 “중세 레반트 지역(오늘날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튀르키예 일부) 기독교인들은 언어적, 문화적 아랍화



크리스천을 위한 이슬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지희 기자



강재춘 박사(FIM 선교사)가 강의했다.



김요한 박사(FIM 선교사)가 강의했다.



유해석 박사(FIM 대표)가 강의했다.

에 직면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변증하는 방식으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전개했다”고 소개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13세기 초 안디옥 바울(Paul of Antioch, 13세기 초)의 ‘무슬림 친구에게 보내는 서한’과 그에 반박한 이슬람 신학자 알카라피(Shihab al-Din al-Qarafi, 1285)의 ‘불순한 질문’에 대한 훌륭한 응답을 중심으로,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진 기독교-이슬람 간 신학적 논쟁의 핵심을 소개했다.

김 박사는 “안디옥 바울은 쿠란을 단순히 논박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이슬람 경전 자체의 언어와 논리를 빌려 기독교론, 성서론, 성례전, 삼위일체와 성육신론 등 기독교 핵심 교리를 변증하고자 했다”며 “이는 타종교 안에서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려는 매우 독창적이고 전략적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알카라피는 이러한 시도가 쿠란 본문의 문법적, 신학적, 맥락적 이해를 왜곡한 것이라 보고, 정통 아슈아리 신학과 언어 해석학에 근거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반박했다”며 “그는 기독교 성서의 변질 가능성을 주장하며 그 신빙성을 부정하고, 성례전과 성육신 교리를 비이성적이며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삼위일체 해석이 쿠란과 충돌함을 조목조목 논박했다”고 말했다. 또 “알카라피의 반박은 단순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 무슬

림 공동체 내부에서 통용되는 해석 체계와 신학적 권위를 바탕으로 기독교의 논리 전체를 재차 해체하려는 적극적인 전략이었다”며 “두 인물 간 논쟁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시 해석 체계와 종교적 세계관의 전면적 충돌이자, 각각의 신학 전통이 허용하는 ‘해석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요한 박사는 이러한 논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선교적 함의로 “첫째, 안디옥 바울의 시도는 ‘상대의 경전을 통해 복음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이 얼마나 지적이고 대화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지만, 해당 종교의 정통 해석 체계와 충돌할 경우 얼마나 빠르게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둘째, 알카라피의 반박은 무슬림 공동체의 경전 이해 방식, 신학적 토대, 해석 권위의 체계성을 잘 보여준다”며 “이는 오늘날 기독교 선교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쿠란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거나 유사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슬람 신학 전통의 내적 일관성과 언어 해석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복음의 해석과 전달은 결국 표면적 유사성에 머무르거나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셋째, 이 논쟁은 오늘날 선교 상황에서 번역 개념이 단지 언어적 작

업을 넘어 신학적, 문화적, 해석학적 차원의 전환을 요구함을 보여준다”며 “단어, 개념 하나조차 각 종교 전통 내에서 고유한 의미와 권위를 지니고 있어 상대의 경전 언어를 빌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선교적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시도는 철저한 내재적 이해와 해석학적 겸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김요한 박사는 “오늘날 다문화적이고 종교다원적인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자신만의 언어로 말할 수 없고, 반드시 타자의 언어와 담론 속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변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안디옥 바울의 시도는 오늘날 선교적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음을 오해 없이, 그러나 낮은 언어로 전달해야 하는 선교 상황 속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며 “이 연구가 이후 보다 실천적이고 대화 지향적인 복음 변증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이 논쟁의 치열한 지적 대결과 신학적 상호작용이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진리의 언어’를 새롭게 모색하는 단초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유해석 박사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 사례 통해 한국교회 이슬람 선교가 배울 점...”

유해석 박사는 ‘중세 기독교 신학자

들의 이슬람 이해 -레이몬드 톨과 쿠사의 니콜라스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했다. 유 박사는 중세 스페인 마요르카 출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신학적 대화를 시도하며 무력 대신 학문과 논리를 통해 이슬람 선교에 접근한 레이몬드 톨(Raymond Lull, 1235-1316)과 15세기 유럽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종교간 대화와 이슬람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인 쿠사의 니콜라스(Nicolas of Cusa, 1401-1464)를 소개하며,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의 이슬람 이해를 설명했다.

유 박사는 “톨과 니콜라스가 활동한 시대는 이슬람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시기로, 이슬람을 하나의 종교로 보는 관점을 생성하기도 했고, 이슬람을 종교 간 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톨과 니콜라스는 기독교 시대의 변증가로,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려 했다”며 “이슬람에 대한 톨과 니콜라스의 공통적인 관심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슬람에 대한 바른 신학적 평가를 하는 것이었고, 외부적으로는 무슬림의 전도에 있었”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들의 노력은 후대 학자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체계적 학문 연구와 이해를 통해 기독교와 이슬람 간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종교 간 학문적 교류의 토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유 박사는 “톨과 니콜라스의 삶과 사역은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 배척보다는 학문적 접근과 대화를 통한 기독교적 사명을 보여야 할 것과,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 용기 있게 무슬림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설득력 있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해석 박사는 “오늘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며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과의 공존에 대비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 또는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이분법적 대응이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토대 위에 ‘함께 살아야 할 사회 구성원, 그리고 ‘비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복음전도의 대상’으로의 접근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모범을 따라 이슬람과의 공존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으로 다가온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게 한다”며 “이 시기에 톨과 니콜라스와 같은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의 선교신학적 사례는 유익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World Vision

월드비전은 전 세계 가장 취약한

아동·가정·지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NGO입니다.



월드비전 후원 문의

02-2078-7000, www.worldvision.or.kr

수단 포트수단 교회 2곳, 이슬람 구호 낙서로 훼손… 불안 고조

수단의 사실상 임시 수도 역할을 하는 포트수단에서 지난주 교회 2곳이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시장 중심가에 위치한 곳으로, 이슬람 신앙을 강조하는 문구가 외벽에 적혀 있었다.

기독교 밖에 감시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에 따르면, 수단 북을주의 장로교회 외벽에는 이슬람 신앙고백 사하다("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자")와 함께 꾸란 구절("그분 외엔 신이 없다, 영화로운 보좌의 주님")이 적혀 있었다. 인근의 정교회 건물에는 "알라는 영원하다"라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쓰여 있었다.

두 교회는 경찰서와 정부 기관 인근에 위치하지만, 현재까지 당국의 공식 대응은 없는 상태다. 정교회는 CCTV를 통해

차량에서 내린 인물이 스프레이를 들고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4월 시작된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수도 카르툼이 전투로 봉쇄된 뒤 수십만 명이 피난한 포트수단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최근 종교 소수자를 겨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을주의 교회 지도부는 지역 긴장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신도들이 낙서를 지우고 추상화처럼 보이도록 덧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도는 "이런 증오범죄가 방지되면 무엇이 다음일지 알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CSW 스콧 바위 대표는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전 속에서 종교



©pixabay

적 관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단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 특히 누바산지대 출신 주민들은 오랫동안 복잡한 차별을 겪어왔다. 다르푸르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RSF 연계 혐의를 받거나, '낯선 얼굴(Strange Faces)' 정책 아래 이동제한임의 구금·즉결 재판을 당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리버나일주 아트바라에서 경찰이 피난민 임시 거처를 강제로 철거하고 카르툼 귀환을 강

요하기도 했다.

한편 수단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2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국내에서 피란을 떠났고, 3,000만 명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

최근 RSF가 다르푸르의 엘파서를 장악한 뒤 민간인을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제적 우려가 더욱 커졌다. 미국 북을전도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머리에 총을 맞은 민간인들과 시신 더미"가 담긴 자료를 봤다고 비판했다. BBC는 RSF 전투원이 비무장 포로 9명을 사살하는 영상을 포함해 일부 영상을 검열했다고 밝혔다.

RSF는 2000년대 다르푸르 학살에 연루된 잔자위드 민병대에서 성장한 조직으로, 지도자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헤메드티가) 금광 수익과 민병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해 현재 10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러시아 등이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단군은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UAE가 RSF를 지원해 '집단학살금지협약'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지만, UAE는 이를 "홍보용 정치극"이라고 일축했다.

2019년 오마르 알바시르 축출 이후 수단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헤메드타는 2021년 쿠데타를 주도하며 과도정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그와 수단군 총사령관 압델 파타흐 부르한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전쟁이 촉발됐다.

현재 RSF는 다르푸르 대부분과 코르도판 일부를 장악하고 있으며, 통제 지역에서 사실상 '행패'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미경 기자

英 침례교단, 목회자 감소 대응 위해 인력 양성 방안 모색

영국 침례교단이 지난 10년간 목회자 수가 약 4분의 1 가까이 감소한 데 따라, 목회자 양성 및 모집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영국침례연합(BUGB) 사역팀 공동대표인 팀 퍼거슨과 리 존슨은 최근 이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감소세를 되돌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이 뱍티스트 타임즈(Baptist Times)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공인 목회자 수는 16% 감소했다. 여기에는 은퇴자 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선교 사역으로 방향을 바꾼 목회자 증가까지 고려하면, 실제 교회 현장에서 섬길 수 있는 목회자는 24%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퍼거슨과 존슨은 BUGB가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목회자 감소의 일부는 하나님과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 결과일 수 있지만, 많은 원인이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 침례교인들은 제자훈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목회 사역이 매력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영국 내 침례교회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 목회자 훈련 과정의 비용과 부담이 큰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퍼거슨과 존슨은 다음 세대 목회자를 발굴·양성하기 위한 교단 차원의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본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으며, 지역 교회가 주도하는 '바탕업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그들은 "모든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비 목회자들은 사역을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성장할 기회가 필요하며,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 또한 지역 교회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직 목회자 역시 차세대 목회자를 발굴하고 동행하며 지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역팀은 현재 침례교단 전체가 참여하는 리더십 육성 경로 구축과 인재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이미경 기자

젤렌스키 “지금도 종전 기회… 해결할 문제 남아”

유럽 외교 총력전… “종전안 진전 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핵심 문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2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문은 매우 어려운 시점에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이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네바에서 논의된 20여 개 항의 종전안이 플로리다에서 추가 협의와 최종 조정을 거쳤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더블린 방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의 일환이다. 그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했으며,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등과도 통화하며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측 인사들과의 접촉도 지속되고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지난날 30일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난 데 이어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트코프 특사와 계속 대화할 의향이 있다”며 “말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를 만날 것이고, 그는 우크라이나에 오는 것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마틴 총리는 “아일랜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 및 감시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전후 재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이날 그는 우크라이나에 1억2500만 유로 규모의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사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재건을 지원할 '책'이라고 표현했고, 마틴 총리 역시 이에 공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일랜드 의회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의 모든 목소리, 모든 지역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저지른 침략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예성 기자

트럼프, 테네시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 후보에 “기독교 혐오” 주장



앞두고 민주당 후보가 “기독교를 혐오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이클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과의 통화에서 공화당 후보 매트 벤 엡스를 지원하며 “전 세계가 이 선거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테네시주 프랭클린에서 유세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도 글을 올려 벤 엡스 지지를 호소하며 상대 후보 애프틴 벤을 사실상 겨냥했다.

그는 벤을 “기독교를 혐오하고, 총기를 빼앗고, 국경 개방을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정책을 모두에게 적용하고, 여성 스포츠에 남성을 허용하며, 컨트리 음악을 경멸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최근 공화당 측이 공개한 한 팟캐스트 녹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에서 벤은 테

네시 주의회에 종교색이 짙은 관행이 많아 “세속적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말한 바 있다. 벤 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에 대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벤은 과거 컨트리 음악과 내슈빌 문화를 비판한 녹취도 논란이 되자 지난 11월 20일 X(옛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당시 발언은 지금의 생각과 다르다”며 “내슈빌이 더 나은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컨트리뮤직 명예의 전당에서 열 번 이상 올 정도로 이 도시를 사랑한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테네시 7선거구 유권자 600명 중 48%가 벤 엡스를, 46%가 벤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초점전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22%포인트 앞서 표를 준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공화당 마크 그린 의원의 사퇴로 치러지며, 당선자는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내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출마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연이어 버지니아·뉴저지 주 선거에서 선전한 상황으로, 벤이 승리할 경우 하원에서 민주당의 석이 1석 늘어나게 된다. 이미경 기자

친환경 에너지전환 선도기업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KSP 한국동서발전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한세에서 비상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한세대학교 2026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 ◆ 접수기간 : 2025. 12. 29(월)~31(수) 18:00까지
- ◆ 원서접수 : 유웨이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www.uwayapply.com)
- ◆ 상담문의 : 031) 450-5051~4



※ 세부 전공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색 포털 '한세대학교'
검색 또는 좌측 QR코드 스캔

*Soar High!
Reach Higher!*

한세대학교
HANSEI UNIVERSITY
www.hansei.ac.kr

李 “트럼프, 우라늄 농축·재처리 韓 자체 생산하고 5대5 동업하자 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공개… 대북·중일 외교 구상까지 다층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재처리 또는 우라늄 농축을 한국이 직접 생산하고 미국과 5대5 동업 형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우려로 인해

관련 협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았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은 군사용이지만 핵무기는 아니므로 비확산 논란과 무관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문제 역시 비확산 원칙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핵무장을 추진할 필요도,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우라늄 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입치를 물었고,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답하자 ‘직접 생산하면 더 낫을 것’

이라는 언급이 나왔다”며 당시 논의 분위기가 비교적 비공식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내에 농축·재처리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핵심은 한국이 자율적 권한을 갖느냐 여부”라고 밝혔다. 그는 “장소 문제는 2차적이지만 가능하면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를 두고 필라델피아 조선소가 거론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흥 차원에서 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

내 조선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과 기술력을 갖고 있어 경제·안보적으로 모두 국내 건조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료 승인 문제 등 여러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소통이 사실상 완전 단절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비상 연락망조차 열려 있지 않다”며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방적 유화 조치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전망하며,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그는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관련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고조되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갈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속담에 ‘싸움은 멀리고 흥정은 붙이랴’는 말이 있다”며 “대한민국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국 기자

국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에… 여야 간 대치 격화

민주당 “사법 쿠데타·내란 청산 방해” 공세 강화…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종결” 맞불로 정국 긴장 고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여야 간 대치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사법 쿠데타와 내란 청산 방해’로 규정하며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의 종결’로 받아들여 강하게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123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하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장 기각이 곧 ‘협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며 ‘정당 해산’, ‘내란 청산’ 등 강경한 표현이 곳곳에서 나왔다. 영장 기각이 오히려 지도부의 공세를 한층 자극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정국 전환의 계기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영장 기각을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라고 표현하며, “2024년 12월 3일 시작된 내란 물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은 독재와 폭압을 멈추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기반으로 대어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공세에 정면 대응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특검이 제기한 내란중요인무종사 혐의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시스

“법리와 사실관계 모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밝히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특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는 적지 않은 제약을 받게 됐다. 박용국 기자

국민의힘, 12·3 계엄 1주년 맞아 사과 메시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다시 사과 입장을 밝히며 책임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계엄 사태로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반성과 정치적 책임을 공약하겠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며, 당시 발표했던 사과 성명과 동일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조재선 의원 25명도 공동 사과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점을 사죄한다”고 밝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존중하며 계엄 주도 세력과 정치

적으로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서울 용산 권영세 의원은 “계엄 선포는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중진으로서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 송석준 의원 역시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책임을 언급했지만,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조치’라고 표현해 송 원내대표와는 다른 뉘앙스를 보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지지층과 중도층을 각각 고려한 분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원내



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속어 사과하고 있다. ©뉴스시스

대표는 충분히 소통했다”며 “역할에 따라 메시지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민주당, ‘인사 청탁’ 의혹 문자 논란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의 ‘인사 추천’ 성격 문자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적절성을 인정했다. 지도부는 해당 메시지가 공식사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내부적으로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기류를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전날 공개된 텔레그램 대화에서 출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강남구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고, 이 장면이 본회의장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대화 내용이 알려지자 공직자의 인사

사도 이러한 행위가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빠르게 공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인의 사과 의사, 책임 표명 의지, 그리고 원내대표의 의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관련 판단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내 논의와 연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논란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다. 강남구 비서관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히며, 해당 처신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우려를 분명히 했다. 박용국 기자

쿠팡 계정 해외 판매 정황…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고조

쿠팡 고객 3,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쿠팡 한국 계정’이 공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정차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는 판매자들이 쿠팡 계정을 상시적으로 팔고 있고, 구매자가 비용을 지급하면 일정 기간 안에 계정을 발급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오바오 판매자들은 약 320위안(약 6만 원) 결제 시 3일 안에 계정을 제공하고, 약 8만 원을 송금하면 24~48시간 내 계정을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약 10만 원을 지불하면 즉시 계정을 전달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일부 판매자는 계정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 경우 한 달 이내 새 계정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보장까지 내걸어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거래는 중국판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중고거래 플랫폼 시엔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시엔위의 한 판매자는 상품 구매에 제약이 있는 계정은 약 5,000원,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한 계정은 약 5만 원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계정 확보 경로가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래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짹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이오펜 및 올리브영 매장
[*시험 7일 후, 전체 제품 사용 결과 | 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 시험대상: 50인 이상 30명 | (주)글로벌뷰티연구원 |]

한동대, 2025 INCHE/HGU 아시아-오세아니아 컨퍼런스 성료

AI 시대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전 세계 기독교 교육자들 한자리에 모여

한 동 대 학 교 (총 장 최 도 성)와 INCHE(International Network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는 최근 김 영길 그레이스채플에서 ‘2025 INCHE/HGU 아시아-오세아니아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31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 시대의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되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INCHE와 개교 30주년을 맞은 한동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AI 시대 고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인지능’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단순한 학술대회를 넘어, 전 세계 기독교 교육자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조강연과 특별



2025 INCHE-HGU 컨퍼런스 참석자 기념 사진. ©한동대

강연이 포함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미국 캘빈대학교 데이비드 스

미스 교수와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가 각각 AI 시

대 기독교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간 열린 행사에서는 매일 공동체성 경 읽기(Public Reading of Scripture) 시간을 시작으로, 5개의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50여 편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미국, 호주, 한국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가해 AI 시대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행사 중에는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한동대학교 동문들이 참여하는 ‘Alumni Session’도

큰 관심을 모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도성 총장은 “NCHE 50주년과 한동대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전 세계 기독교 교육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해진 전인지능 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서로 나눈 통찰과 감동이 각자의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한신대, ‘제1회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 개최

수료생·교단 관계자 한자리 예배·기념식·교류 시간 통해 신앙 공동체성 재확인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가 최근 경기 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북카페에서 ‘제1회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한신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김대숙)이 주관했으며, 장로아카데미 수료생들이 다시 모여 신앙의 여정과 교회의 미래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관계자, 한신학원 및 대학 구성원, 아카데미 수료생

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예배와 홈커밍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예배는 오광섭 제1기 회장의 예배의 부름을 시작으로 ▲기도(백창인 제1기 반장) ▲성경봉독(도병삼 제2기 부반장) ▲특송(이만수 제1-3기 장로) 순으로 진행됐으며, 설교는 한신학원 오용균 이사장이 전했다.

오 이사장은 “우리 함께 아름답고 멋진 교회들”을 주제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둔 것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바른 교훈으로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

함이었다”며 “성도와 사역자가 함께 바른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위에 세워 나갈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배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이종화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홈커밍 순서에서는 장로아카데미 123기 발자취 영상 상영, 문형률 제3기 회장의 기념사, 강성영 총장의 환영사, 이종화 총회장의 축사, 차인기 전국장로 연합회 회장과 이강권 중경 부총회장의 격려사, 장성수 제2기 회장의 감사인사가 이어졌으며 기수별 소감 나눔의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테너 강형문의 공연과 친교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은 신앙과 사역을 공유하며 교류를 나눴다.

강성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한신대가 장로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장로님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평생교육원의 준비된 최상의 교육 덕분이었다”며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장로님들께 주도권을 맡기고, 학교는 최고의 교육 서비스로 지원하며 교단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장로아카데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화 총회장은 축사에서 “장로아카



제1회 장로아카데미 홈커밍데이 참석자 단체 사진. ©한신대

데미는 지식 습득을 넘어 제2의 캠퍼스 라이프를 경험하며 지식과 영성, 그리고 따뜻한 신앙 공동체성을 함께 세워 온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로님들께서 정의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교회와 교단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주시리

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한신대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장로아카데미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장로를 대상으로 신학·영성·리더십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2024년 11월 제3기 수료에 배 이후 처음으로 홈커밍 행사를 마련했다. 장지동 기자

총신대학교, 네덜란드 드리스타 기독교대학과 교류 협력 강화 논의

10년 만의 공식 방문 양 대학, 학생 교환·기독교 교원 양성 등 협력 확대 뜻 모아

총신대학교(총장 박성규)는 최근 네덜란드 드리스타 기독교 대학(Driestar Christian University)의 로버트 자우텐다이크(Robert Zoutendijk) 총장과 국제 교류 담당 실무진이 학교를 방문해 양 대학 간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총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총신대 박성규 총장을 비롯해 안인섭 통합대학원장, 이희성 기획혁신본부장이 참석했으며, 드리스타 대학에서는 얀 드 발(Jan de Waard), 요엘 바스(Joel Baas), 보르 리디아(Bor Lydia) 등이 함께했다. 드



네덜란드 드리스타 대학 총장 일행 총신대 방문 기념 사진. ©총신대



리스타 대학의 공식 방문은 10년 만으로, 양측은 그동안 이어온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학생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논의했다.

양 대학은 이날 ▲우호 협력 강화 ▲학생 교환 프로그램 확대 ▲기독교 세계관 기반 교원 양성 협력 등 기독교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자우텐다이크 총장과 박성규 총

장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춘 교육자 양성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협력의 지를 강조했다.

인사말을 전한 박성규 총장은 “먼 한국의 총신대학교까지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드리스타 대학교 로버트 자우텐다이크 총장님과 교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며 “드리스타 대학과 앞으로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교류를 이어가길 희망하며, 양 대학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탁월한 기독교 인재들을 함께 양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드리스타 기독교 대학은 네덜란드 하우다(Gouda)에 위치한 기독교 교사 양성 전문대학으로 탄탄한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장지동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고신대·백석대, ‘2025 대학 간 융합형 학술 포럼’ 공동 개최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최근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2025 대학 간 융합형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독교 신조와 교회법’을 주제로 고신대학교와 백석대학교의 신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학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2개의 주제 발표와 2개의 논평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진하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장)는 ‘니

케아 신조의 56년간 수용 난제와 해법’을 주제로 니케아 신조의 해석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신학사적 쟁점을 분석했다. 논평은 김재용 목사(함경교회)가 맡았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윤은수 교수(고신대학교 성경학과)가 권징이 한국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으며, 권징 제도의 역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성장 동력을 고찰했다. 논평은 이신열 교수(고신대 신학대학장)가 했다. 고신대학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학술



학술 포럼을 기념하면서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고신대

교류 활성화와 연구 협력 공동체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나사렛대, 2025학년도 교직원 퇴임식 개최



나사렛대학교 2025학년도 교직원 퇴임식 기념 사진. ©나사렛대

나사렛대학교(총장 김경수)는 최근 경관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교직원 퇴임식’을 열고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들의 공로를 기렸다.

이번 퇴임식은 학교의 교육적 사명과 성장에 헌신해 온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총장 격려사, 공로패 증정, 감사패 및 기념품 전달, 축주, 퇴임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수 총장은 격려사에서 “지금까지 나사렛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이 우리 대학과 학생들에게 큰 울림과 선한 영향력을 남겼다”며 “가족과 후배들,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며 더욱 뜻깊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목회자, 살아있는 인간 문서 읽으며 경청하는 자질 있어야”

최창국 교수, ‘살아 있는 인간 문서’ 관점으로 목회 본질 재해석

최창국 교수(백석대 실천신학사신)가 최근에 복음과 도시 홈페이지에 ‘살아 있는 인간 문서를 읽는 목회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교수는 “신학적 언어가 인간의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와 접촉점 없이 신학과 목회자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학적 언어는 인간의 경험적 자료와 만남이 없이는 적실성 있게 형성될 수 없다”며 “신학적 언어는 기독교 전통의 역사적 자료뿐 아니라 인간 삶의 경험적 연구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톤 보이센은 이것을 ‘살아 있는 인간 문서(living human documents)’에 대한 연구로 보았다”며 “그는 인간이 정신적, 영적 삶의 여정에서 부딪히는 경험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 전통의 토대를 밝혀주는 역사적 텍스트를 연구하는 만큼이



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인간 문서를 단지 어떤 틀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특히 인간의 경험을 어떤 교리적 틀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자기 생각이나 의도에 맞추려 하면 안 되듯이, 살아 있는 인간 문서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 목회자는 반드시 살아 있는 인간 문서 연구가 필요하다. 목회자가 신학적 지식이 탁월해도 돌보는 사람 곧 인간 문서를 모르게 되면, 그 지식은 적실성 있게 작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와 상황을 아는 일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들의 언어세계, 의미세계, 정신세계, 일상의 갈망과 상처의 세계로 들어가 경청하며 관찰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목회자가 교회의 사역을 잘못 규정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교회의 사역은 일상생활의 영

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여길 때가 많다”며 “교회의 사역은 교회 자체를 세우는 데 있기보다는 교인들이 일상에서 직면한 삶을 경청하며 관찰을 통해 복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교인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생활의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목회자는 돌봄의 대상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 경청과 관찰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야 한다”며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관계에서 부딪치는 돌봄의 문제들은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경청하며 관찰하며 가능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상처와 정서적 역류가 흐르는 공동체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갈망과 상처를 먼저 경청하며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먼저 그들의 갈망과 상처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걸려야 한다”며 “목회자는 단지 교리를 논하며, 그것만을 품고 살아가는 안 된다. 목회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뭔가를 갈망하고 뭔가를 상실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성경과 교리의 바른 이해를 통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여긴다. 물론 설교와 가르침은 목회자의 중요한 과업이다. 하지만 설교와 가르침만을 목회자의 본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목회자가 회중과 실제로 전혀 교류하지 않고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도들의 갈망과 상처를 복음으로 대화하기를 소망하는 목회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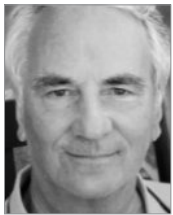
그러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망과 상처를 경청하여 사람들의 변화와 필요를 소망하는 목회자는 늘 해오던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복음으로 바르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욕구에서 먼저 사람들의 갈망과 상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삶의 비전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가 교회의 역사적 성인과 의인들 하고만 살아가는 안 된다. 목회자는 성경 텍스트뿐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문서를 읽으며 경청할 수 있는 자질도 있어야 한다”며 “목회자는 현재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목회자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가르치고 설교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경청하기보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며 설교만 하는 것은 바른 목회 실천이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환부에 진리의 검을 찌르는 것은 마치 제 없이 수술하는 것과 같다. 목회자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늘어놓거나 설교처럼 들리는 기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돌봄이 아니”라며 “목회자는 진부한 말과 단지 거룩한 말과 충고로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의 폭풍에서 끌어낼 수 없다. 폭풍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날씨가 화창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흠뻑 젖는 것이다.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들을 때 함께 젖을 수 있다”고 했다.

장지동 기자

한 사람의 목시: 개인적 종말과 부흥의 의미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리 맥글로틀린(사진)의 기고글인 ‘한 사람의 종말’(The apocalypse of one)을 최근 게재했다.

제리 맥글로틀린은 현재 공화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게스트를 대변하고 유대-기독교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홍보 기관인 스페셜 게스트(Special Guest)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최근 ‘목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아마겟돈, 종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최후의 전투와 재앙 등이다. 많은 신자들은 다가올 심판에 대비한다. 진노의 잔, 나팔 재앙, 해마다 더 크게 들려오는 예언적 뉴스 헤드라인이 그렇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최후적이고 대규모 종말이 오기 전에, 흔히 또 다른 형태가 먼저 온다. 바로 ‘한 사람의 종말’이다.

◆당신만의 종말

‘종말’이라 하면 사람들은 대개 전 세계적 혼란, 기근, 박해, 짐승의 표를 떠올린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간의 끝은 바로 심장이 멈추는 순간 찾아온다.

만약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로 다가올 재앙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만약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다면, 바벨론의 멸망을 여전히 걱정해

야 하는가? 만약 반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폐가 망가진다면, 전력망 붕괴가 중요할까?

진실은, 우리 모두는 발린 시간 위에서 살고 있다고 있다. 그 카운트다운은 우주의 일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다. 하루하루가 마지막 호흡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세상의 시대가 언젠가 끝날 수 있지만, 우리의 시대는 오늘 밤 끝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뚝딱가리는 시계’ 속에서 살아가며, 매 심장은 영원을 향한 한 박자다.

◆최후의 날, 누가 살아남을까?

학자들 중 일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남은 자 가운데서 남은 자를 보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를 “죽일 수 없는 자들”이라 부르기도 한다. 요엘서를 근거로, 종말의 군대가 완전한 연합 속에서 행진하고, 벽을 넘어 달리며, 멈출 수 없다고 본다.

또 다른 이들은 휴거(rapture)에 초점을 맞춘다. 전대환, 중대환, 후대환 등 어떤 휴거를 믿든, 혹은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최후의 아마겟돈 전투를 위해 내려오기 직전에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것을 믿든, 핵심 주제는 같다. 극적인 신적 구출이다.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갈 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 누군가는 마지막 날,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이 살아있는 채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보존된 남은 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표, 방식, 기적의 가능성과 관계없이, 모든 신자는 여전히 ‘한 사람의 목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부가 육체적 죽음을 면한다 해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은 여전히 예외가 없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영혼이 휴거되든, 심장이 멈추든, 영광으로 옮겨지든, 베개 위에서 잠들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시(apocalypse)의 의미

‘목시’라는 단어는 파괴가 아니라 드러남(revelation)을 의미한다. 요한의 목시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목시”가 다가올 때 질병, 상실, 비극, 혹은 단순히 생의 끝을 맞이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지 보여 준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한 개념으로만 신뢰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시련 속에서도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가?

모든 개인적 목시는 드러남의 순간이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닻인지, 아니면 단순한 위로의 구호인지 확인한다.

◆폐허보다 앞서는 부흥

이 때문에 부흥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 부흥은 지금이다.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되, 동시에 모든 사람의 부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리고 그분의 뜻으로 돌아서는 교회

공동체로 퍼져나가야 한다.

성결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다. 바울이 말했듯 매일 죽고, 죽음을 통해 진정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은 고난을 피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는다. 우리가 “매일 죽을 때,” 목시는 그 쏘는 듯한 두려움을 잃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경은 말한다: “적이 홍수 같이 들어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는 기를 들게 하리라.”

◆1,000년이든 10년이든 결국 한 호흡일 뿐이다

이 땅의 삶은, 10년이든 천 년이든, 영원에 비하면 단지 한 점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거하시며,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그 분의 완전한 평안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낮이 있을 때 일하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따라서 지금 선을 행하라, 지금 사랑하라, 지금 회개하라, 지금 순종하라, 지금 섬기라, 지금 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목시가 한 사람의 부흥과 만날 때, 죽음의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삼켜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는 자가 지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 그는 영광 속에서 눈을 뜬다. 어둠 속이 아니라, 영원한 빛 속에서이다.

최승연 기자

김진홍 목사 “한국교회, 예수 붙들고 예수에 모든 것 걸어야”

두레수도원 김진홍 목사(사진)가 최근 전한 아침묵상을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한갓 종교 기관으로 멈춰버릴 것”을 우려했다.

그는 “목표에 이르는 4가지 원리(2)”라는 짧은 글을 통해 먼저 “본질의 원리와 현장의 원리에 대하여 살피겠다”고 밝히고, “무슨 일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질 혹은 핵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면서 “비본질적인 것, 자엽적인 것에 매달려 노심조사하다가 아까운 세월만 가게 되고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없게 된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 점에 있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하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회가 여하한 경우에도 본질을 붙들고 나가야 하거나 비본질적인 데에, 자엽적인 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본질이라 함은 진리 자체, 복음 자체를 의미한다. 교회가 진리 자체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못한 채로 피상적인 잡다한 일들에 매여 월가월부하며 세월을 낭비하다가 실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잘되는 듯하다가 종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교회의 현실을 보노라면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고 했다.

최승연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축 해임인도
-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경로 선택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돈기갑)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대통령의 ‘정교분리 위반 시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에 대해



김요셉 목사
기독교한국 대표
평택사랑의교회 담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 규정하고, 종교재단의 조직적·체계적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했다. 나아가 일본의 종교법인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필요시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을 단순한 국가 중립을 넘어, 종교단체의 정치 활동 전반을 포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확장하려는 신호로 읽히며, 신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차별·우대하지 말라는 중립·불개입 명령이다. 이 원칙이 종교단체의 모든 정치적 발언을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가가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에게 허용된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조직적 정치 개입” 일반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할 경우, 종교단체가 공적 사안에 대해 비판·견제 표명을 하는 행위까지 선거운동과 동일선상에 놓여 제재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설계될 위험이 있다.

또한 일본 통일교 해산 청구 사례를 끌어 “해산 명령”을 거론한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에서의 핵심 쟁점은 수십 년간 반복된 고액현금 강요기, 강제 모금 등 구체적 위법 행위와 대규모 피해였고, 정치 개입은 부수적 요소에 가

까웠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이를 단순히 “정교분리 위반에 대한 해산 명령”으로 소개하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추상 기준에 근거한 행정부 재량이 뒤섞여, 해산 요건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해산 제도 자체를 논의하더라도, 엄격한 법원 통제명확한 위법 요건파해 회복 중심의 설계를 전제로 해야지, 정권과 긴장 관계에 있는 종교단체를 압박하는 수단처럼 비칠 인사를 최고 권력이 가볍게 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는, 정치권력이 표와 조직을 얻기 위해 특정 종교세력과 유착하는 카르텔이었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교분리 원칙의 남용을 우려한다면, 종교의 권력 비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종교 이용, 정권 친화적 종교세력의 특혜면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교분리가 정권에 비판적인 종교세력만을 향해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헌법 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의 언어가 된다.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도구는 이미 형법·정치자금법·민법·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률에 마련되어 있다. 특정 종교단체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 강요된 헌금, 사기성 모금,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다면 그 행위자를 상대로 엄정하게 수사·재판을 진행하고, 피해 회복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면 된다.

정교분리는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합법적 범위 안에서 종교단체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 공적 사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라는 복합적 원칙이다. 대통령은 “해산 명령”이 아니라,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 선거 공정성을 동시에 지키는 세심한 헌법 감수성과 제도 설계의 의지가

왜 성경을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가? (3)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참된 지혜와 지식은 세상적 학문이나 지식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는 기초입니다.

3-1. 잠언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강해주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경외심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며, 이것이 성경적 진리를 깨닫는 근본입니다.

3-2.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강해주석: 지혜뿐 아니라 지식의 근본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편향된 선택과 확증편향은 성경의 훈계(가르침)를 멸시하는 미련함에서 비롯됩니다.

3-3. 시편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강해주석: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날 때 훌륭한 지각(깨달음)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3-4. 욥기 28:28 “또 사람에게 말하소서: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강해주석: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의어로, 명철(깨달음)을 악을 떠나는 행위와 연결하며 지혜가 삶의 실천과 분리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3-5. 잠언 26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니라.”

◆강해주석: 인간의 지성이 아닌 여호와에게서 지혜와 지식, 명철(깨달음)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어떻게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3-6. 시편 25:14 “여호와와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강해주석: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말씀/진리)을 깨닫게(보이시리로다) 됩니다.

3-7. 잠언 3:5-6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강해주석: 자기가 가진 지식(명철)에 의존하는 것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진정한 인도(깨달음)를 얻게 됩니다.

3-8. 시편 19:7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강해주석: 하나님의 말씀(율법, 증거) 자체가 완전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3-8. 신명기 29: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강해주석: 성경에는 나타난 일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행함)할 때 깨달음에 이릅니다.

3-9. 호세아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강해주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힘써 추구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으며, 이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줍니다.

3-10. 잠언 14: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강해주석: 경외함은 생명의 근원(샘)이 되어,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3-11. 시편 34:11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강해주석: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배우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며, 이는 곧 진리를 깨닫는 방법론이 됩니다.

3-12. 야고보서 3: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강해주석: 참된 지혜(깨달음)는 위로부터(하나님께) 오며, 편견(편향된 선택)이나 거짓이 없는 선결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계속>

MBTI와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성숙

양기성 박사

웨슬리언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최근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MBTI가 중요한 대화 코드로 자리잡고 있다. 청년부 모임에서 서로의 성격 유형을 묻고, 직장 사역이나 상담 현장에서 MBTI는 유용한 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MBTI를 단순한 유행이나 심리 테스트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 목회는 MBT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 공동체 목회가 직면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먼저, MBTI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창 21:10)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설계 속에서 고유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조용한 내향적(I) 성향을, 누군가는 관계 중심의 외향적(E) 성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다양

성이 존중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쉽게 규정하는 대신, 서로 다른 성향을 인정할 때 공동체는 더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

또한 MBTI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돕는 목회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에 민감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F 유형의 성도는 갈등 상황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소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는 “서로 용납하라”는 성경적 가르침과 함께, 건강한 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지도해 줄 수 있다. 반대로 T 유형의 성도는 논리와 분석에 익숙하지만, 관계적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목회자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의 고귀한 길”(고전 13장)을 제시하며, 영적 균형을 돕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MBTI는 목회자 스스로의 리더십을 성찰하는 데도 큰 유익을 준다. 목회자 역시 인간이며, 고유한 성격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J 유형의 목회자는 사역을 질서 있게 이끄는 장점이 있으나, 때로는 성도들의 즉흥적이고 창의적 제안(P 유형)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반대로 유연한 P 유형 목회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역을 확장하

는 데 강점이 있지만, 지나친 유연함은 조직의 흐트러짐을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목회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하면 더욱 균형 잡힌 사역을 펼칠 수 있다.

물론 MBTI를 목회 현장에서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 MBTI는 하나의 도구일 뿐,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MBTI 유형이 곧 그 사람의 실제나 운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기질적 성향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내향형(I)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고, 감정 중심(F)이라 하더라도 말씀의 훈련을 거치면 바른 분별력을 가진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MBTI는 인간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MBTI는 교회의 사역 배치에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성향이 서로 다른 성도들이 적절한 사역을 맡을 때 은사가 극대화되고, 공동체는 더 큰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어, 세밀함과 계획성이 강한 J 유형은 행정 및 조직 사역에 강하고, 사람들과 만남을 즐기는 E 유형은 환영 사역, 친교 사역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

다. 반면 깊은 내적 성찰을 즐기는 I·N 유형의 성도들은 기도 사역이나 묵상 모임에서 놀라운 영적 깊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 됨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된다.

결국 MBTI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유익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도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누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공동체는 성격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은사를 따라 한 몸을 이룬다”고 했다(롬 12:4-6). 이는 MBTI가 말하는 다양한 성향 역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귀한 은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오늘의 교회는 다시 MBTI 너머에 있는 성경적 진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인간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성령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목회적 MBTI 사용의 참된 목적이다. MBTI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고’… 건강수명 66.4년 ‘유병장수’

국가데이터처,
‘2024 생명표’ 발표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7세까지 살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기간도 더 길어지는 ‘유병장수’ 현상이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말한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전년보다 0.2년 늘었다. 10년 전보다는 2.1년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자는 86.6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8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정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기대수명의 남녀 차이가 1985년 8.6년까지 증가했다가 그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보통 남자들이 조금 위험한 직군에 많이 종사를 하거나 하지만 사망률이 높았던 사고사, 간 질환, 음주 등 사망률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 64.4%, 여성 82.2%였다. 반면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 1.2%, 여 4.8%로 초고령 장수층은 여성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세 남성은 23.7년, 여성은 28.4년을 더 살아갈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 1.5년가량 증가했다.

기대수명은 지난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 감소했다가 2023년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국내 기대수명은 OECD 평균(남 78.5년, 여 83.7년)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보다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4년 83.7세로 높아졌다.

박현정 과장은 “(OECD 평균 비교 시) 전년에는 남자가 12위였고 이번에는 11위로 올라섰다”며 “여자는 3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나라



별로 업데이트되는 연수가 조금 달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출생아 기준 3대 주요 사인(암·폐렴·심장질환) 사망확률(출생아 기준)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남녀 전체 기준 암(악성신생물)은 19.5%, 폐렴 10.2%, 심장 질환 10.0%로 나타났다.

특히 암과 심장질환·폐렴은 지난 10년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아진 폐렴 사망확률이 꺾이지 않고 유지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정 사망원인을 제외할 경우 기대수명은 크게 늘어났다. 3대 사인을 제외할 경우 나타난 기대수명은 6.1년이다.

암을 제거하면 기대수명이 3.3년 증가하며 심장질환 제거 시 1.2년, 뇌혈관 질환 제거 시 0.8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이 가장 영향력이 큰 사망원인

이며 건강수명 단축에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단순 기대수명과 달리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짧았다.

2024년생의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남 64.6년·여 65.5년, 전체 평균 66.4년으로 집계됐다. 즉 국민 전체 기대수명 83.7년 중 약 16.2년은 질병을 가진 상태로 살아가는다는 의미다.

한편, 스스로 건강하다고 평가한 데 기반한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73.8년으로 분석됐다.

박 과장은 “의료서비스, 보험의 확대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어 내원일수 등이 증가했다”며 “경미한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을 많이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다는 기자

심한 수면무호흡, 뇌 미세출혈 위험 2배 높인다 중장년층 8년 추적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뇌 미세출혈 위험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이 뇌 미세출혈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하는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의 지역

사회 기반 안산 코호트를 통해 진행했다. 연구팀은 노화 심층조사사업 참여자 중 중장년층 1441명을 8년간 추적해 수면무호흡의 중증도가 뇌 미세 출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현상으로 호흡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분류한다. 경증은 시간당 5~14회, 중등도 시간당 15~29회, 중증 시간당 30회 이상이다.

뇌 미세 출혈은 뇌 속의 작은 혈관이 손상돼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뇌졸중

등 심각한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뇌 미세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경증 수면무호흡증에는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뇌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 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수면 중 심한 코골이나 숨이 잠시 멈추는 듯한 현상, 낮 동안 과도한 졸림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면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수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코골이나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위해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다는 기자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예약 2분 만에 마감

서울시립대, 광진·도봉·송파 체력인증센터 예약
운영 안정화 시 일 420명, 월 8400명 이용 가능

서울시가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예약이 지난 일 오후 1시 오픈과 동시에 단 2분 만에 마감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전 예약은 이날 개소한 서울시립대학교, 광진·도봉센터와 오는 10일 개소 예정인 송파센터에 대해 진행됐다.

예약 시스템은 매일 1일(2일~16일 일정), 16일(17일~다음 달 1일 일정) 오후 1시에 오픈되며, 센터는 이날부터 순차 개소해 시는 내년 말까지 서울 시내 총 50개소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국민체력100’ 시스템을 적용해 표준화된 6개 체력항목을 측정하고, 결과 기반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서울형 체력관리 모델이다.

시는 체력인증센터 확충과 함께 이용 수요에 맞춰 운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루리 기자

향후 25개 자치구에 센터가 1개소씩 설치되면 월 8400명 내외의 시민이 생활권에서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다.

예약 및 참여는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체력측정 후 5000포인트, 6개월 후 체력등급 향상(1등급은 유지) 시 추가 5000포인트(연 최대 1만 포인트)가 제공된다.

이번 손목닥터9988 앱 개편을 통해 걷기·체력·금연·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건강행동과 포인트 연계가 전면 강화됐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첫 예약부터 빠르게 마감된 것은 시민들이 예방 중심의 체력관리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서울체력9988을 통해 생활권 어디서든 간편하게 체력을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첫 공개

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459개다.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책 수용성이 떨어져 실제 평가는 진행되지 못했다.

단 2019년부터 컨설팅 방식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진단 등을 한 결과 현장 반응과 정책 수용성이 제고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 83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한다.

평가에 따라 A~C 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며 복지부는 홈페이지 등에 인증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별로 평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에 첫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돼 알권리가 제한됐는데 합리적 선택을 위한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산후조리원의 자발적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고가의 산후조리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격 대비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합리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루리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망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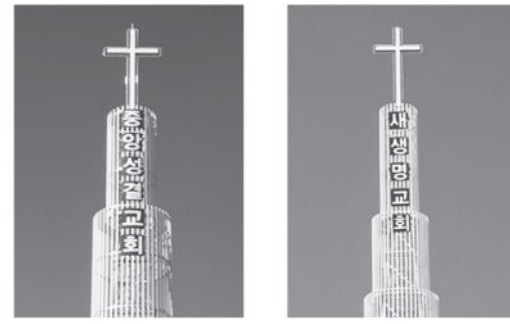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NAVER 검색창에서 **충만기업** 을 치세요!

충·만·기·업



- ◆ LED 설치 및 네온수리 전문★★
- ◆ 종탑, 종각, 파이프탑 시공
- ◆ 각종 구조물탑 시공
- ◆ 대형십자가, 소형십자가 시공
- ◆ 각종탑 철거, 이전

TEL: 02-802-2005 H.P: 010-5276-9049
FAX: 02-806-3334 (경남지점) 055-942-10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5-17 / 대표: 정현석 집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겐 목사

-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 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無 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절대 변경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던 의식 중에는 피 흘림 없이 죄가 도말되는 의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대속 없이는 절대 죄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에 줄 만한 가치가 있는 피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의 대속의 피가 우리 영혼에도

정말 적용되고 있습니까? 죄의 대속을 위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관대하거나 상냥하거나 애국적이 될 수 없는 한,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 규율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못지 않게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꼭 한 군데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길을 두고 왜 굳이 다른 길을 찾아 헤맬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



다. 그들은 자신의 선행이나 기도 혹은 예배 의식을 통해 아주 형편없는 위로를 받을 뿐입니다. 어쩌면 몹시 불안해 할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하고 피 없이 죄사함을 받으려 수고하며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공의를 보되, 그것을 죄를 벌하기 위한 한계

선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형벌이 주 예수님께 집행된 것을 보고 기뻐하며 겸손히 엎드려 여러분을 위해 그 피로 대속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 발에 입맞추십

시오. 양심을 달래기 위해 감정과 증거에 매달려 보았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익힌 습관입니다. 가책에 시달리는 양심이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그 생명인즉”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믿음과 기쁨과 다른 모든 거룩한 은혜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집시다.

“오! 구세주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보니 어쩌나 소중하고 귀한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가 그 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다고 알려 주시네.”

찰스 스필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바이블지식IN

영원한 저주에 대한 생각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입니까?

현대 문화의 변화하는 바람 속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옥이 실재하는 장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서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만이 벌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도 그들과 함께 영원을 보낼 것입니다. 지옥 교리를 거부하거나 수정하려는 욕망이 지옥의 불길을 약하게 만들거나 지옥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에 대한 생각을 불편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사상의 영향. 포스트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기분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옥에 대한 성경적 교리는 타인에게 공격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여 집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가혹하고, 너무 구식이며, 너무 둔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려움. 어떤 희망도 없는 끊임없는 형벌을 생생하게 느낀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예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근원을 직시하고 성경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런 근원을 무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지옥은 원래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심판의 장소이므로 당연히 두려운 장소일 것입니다(마태복음 25:41).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견해.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과 같은 끔찍한 곳으로 영원히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대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 의, 거룩과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 즉 십자가 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준비해주셨습니다(요한복음 3:16-18).

죄에 대한 경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의 죄를 지었을 뿐인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 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영원한 고문을 당할 만큼 나쁘지

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시하는 것은 보통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인 등의 죄를 지었으므로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죄의 보편적으로 악한 본질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불 형벌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막고 로마서 3:10의 진리를 부정합니다(“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악의 끔찍함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죽이기까지 미워하셨습니다.

비정상적인 설명.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의 개념을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잘못된 설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설명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보편 구원론(Universalism)입니다. 또 다른 설명은 지옥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지옥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부정하는 영혼 멸절설(Annihilationism)입니다. 멸절론자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결국 죽어 존재하기를 멈출 것이라고 믿습니다(즉, 소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설명은 지옥을 단순한 잠시 동안의 처벌로 만듭니다. 이 두 설명은 지옥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일종의 선택지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두 설명 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견해를 우선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불완전한 가르침. 오늘날 지옥의 교리를 믿는 많은 목회자들도 지옥 교리가 너무 민감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도 현대의 지옥 교리 거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이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에 무지하고 지옥 문제에 대한 속인수에 쉽게 속아넘어갑니다. 목사의 책임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유다서 1:3)이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생략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은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세기 3:4)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여전히 사탄의 주요 전술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고린도후서 4:4). 이렇게 혼미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를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없이 “먹고 마시

고 즐겨워” 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지옥의 개념을 무리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명기 32:4, 강조 추가됨). 하나님의 소망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베드로후서 3:9).

지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신이라면 지옥을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일텐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의 문제는 교만함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더 낮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거나 더 공의롭지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성경의 교리를 거부하거나 수정하면 슬픈 아이러니가 따라옵니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지옥을 조금이라도 식혀 보려는 시도는 결국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갯세스투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1 John 3:3 NIV
All who have this hope in him purify themselves, just as he is pure.

- 1 John : 요한일서
- all who : ~하는 모든 사람들
- this hope : 이러한 희망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분의 참모습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희망)
- purify : 깨끗하게 하다
- just as : ~하는 것처럼
- pure : (영혼, 생각, 행동 등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맑은

요한일서 3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촌,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FC

한국농어촌공사

강지윤 칼럼 닉 부이치치 힐링효과



강지윤 박사

고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위대함’은 바로 세상의 모든 상처와 열등감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의 몸과 영혼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극심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된 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왜...!” 그런 원망을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

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닉 부이치치일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누구든 한 번만 보면 많이 놀라게 될 심지어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을 기형의 모습.....

철없는 또래 아이들의 놀림에 우울증을 겪으며 여덟 살 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신을 원망도 하며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살하려는 순간, 자신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을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생각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지나오면서 닉 부이치치는 진심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행복해 보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가 하는 말

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의 나를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는 신체의 팔 다리가 없었고, 나는 마음의 팔 다리가 없는 기형이었습니

다. 오직 그는 신체적인 기형일 뿐이었습니

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받고, 나는 사랑의 결핍을 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던 최고의 장애인 두려움을, 나는 치유의 끝에 설 때까지 앓았습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은 더욱 훌륭합니다. 장애아를 낳았지만 그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지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었던, 그의 부모님이 없었다면 오늘

의 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가족의 사랑이 팔 다리 없는 그를 자살에서 구했지만, 나는 사람이 고갈되어 외로움 속에서 계속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상한 마음의 당신은 어떠십니까?

닉 부이치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현재 그의 얼굴 어디에도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는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날려버릴 만큼 빛이 납니다.

그의 강연은 독특합니다. 온 몸으로 강연을 합니다. 강연 중에 그가 갑자기 “쿵”하고 넘어졌습니다. 청중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고 있을 때,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이러

팔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군요.”

“제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죠.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려 했죠. 그리고는 자,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자신의 모든 몸을 이용하여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닉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포기만 않는다면 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전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죠.”

닉은 참으로 밝고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청중들은 급기야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닉의 모습을 무의식 중에 비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닉의 모습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애는 장애가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닉 부이치치를 검색해 보고, 그의 강연을 들어보거나 그의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길고 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와 행복해졌듯이,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김성광 칼럼 수고가 먼저다

오늘 먼저 수고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돌보아 주신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걱정도 병도 아니다. 어떤 일에도 수고하지 않는 게으름이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1469-1527)의 말이다.



故 김성광 목사

우리는 누구나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수고가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고해야 한다. 학생은 공부하기에 수고하고, 부모는 자녀 양육에 수고해야 한다. 농부는 농사짓는 일에, 사업가는 사업을 일구는 일에 수고해야 한다. 정치인도 공직자도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수고가 없는 결실은 없는 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힘입어 값없는 구원을 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먼저 수고하면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인도의 사상가 간디(Mohandas karamchand Gandhi, 1869-1948)도 “우리가 오늘 먼

저 수고하면 신은 우리의 내일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며 수고를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고를 살펴보자.

첫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 1886-1965)는 현대사회를 불의와 불신, 불안의 시대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함으로써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며, 정직해야 한다. 즉,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삶의 가치를 잘 보여 준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

경반은 대통령으로 꼽히는 그의 별명은 ‘정직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짐작케 하는 별명이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찾았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정직을 배우고, 정의를 배우고, 자유를 배워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뿌린 선한 씨앗은 반드시 귀한 열매로 돌아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고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둘째,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

미국의 사업가 폴 마이어(Paul J. Meyer)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27세에 백만장자가 되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된 폴 마이어, 어느 날 그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젊은 나이에 성공하게 된 비결을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청지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 보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우선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쿨리지(Calvin Coolidge, 1872-1933)가 알려주는 축복의 비결도 마찬가지다. 그는 가장 크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온전한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신 재물을 더 열심히 가꿔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수고를 아까워 말자. 청지기의 역할을 잘 할수록 우리는 더 크고 값진 것을 관리하게 된다.

셋째, 먼저 복음을 전하라

“전도는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 주는 것이다.” 영국의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목사의 말이다. 전도는 단순히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일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도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생명을 구하

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수고가 없다.

전도하기에 수고를 아끼지 말자.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듯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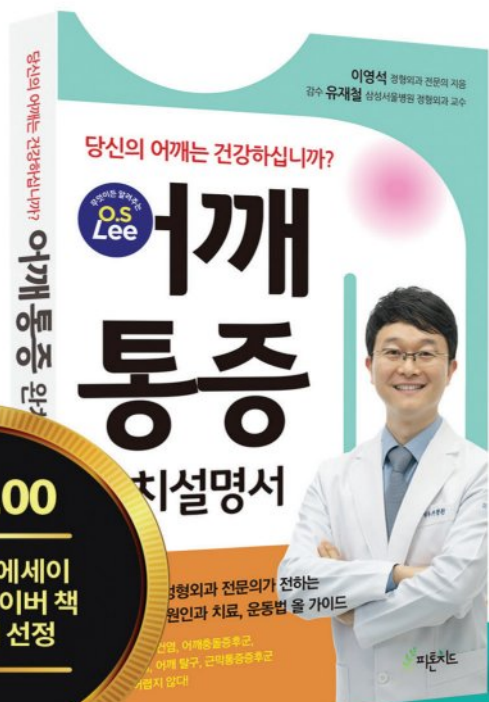
득 넘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것은 축복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이다. 먼저 수고하자. 수고에 게으르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은혜의샘물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하루는 마르틴이 성경을 읽고 명상에 잠겼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마르틴!” 문득 누군가가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마르틴은 날카로운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르틴은 다시 엎드려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한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마르틴, 마르틴야! 내일 도로를 보아라. 내가 갈 터이니.” 마르틴은 의자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꿈속에서 들었던 지 꺼서서 들었던 지 같피를 중점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르틴은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난로에 불을 지피고 국과 보리죽을 끓이고 물 주전자를 준비하고 양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어젯밤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있는 마르틴은 일을 하다가보다는 창 너머로 큰길로 내다보는 편이 더 많았습니다.

창 너머로 바라보니 스제빠니치라는

가난한 늙은 병사가 길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삼을 벽에 기대 놓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깊게 쌓인 눈을 치기에는 기력이 너무 쇠한 이 노인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일감을 옆으로 치우고 나서 차를 준비한 다음 스제빠니치를 집안으로 불렀습니다. 스제빠니치는 추위에 온몸이 찌시고 손발이 시려 떨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스제빠니치에게 여러 잔의 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중에 마르틴은 스제빠니치에게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난하고 못 배운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신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스제빠니치의 양 볼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스제빠니치가 가고 난 다음에도 창 너머로 주님이 흑시 오시느가 하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창 너머로 내다보니 허술한 여름 옷차림새의 한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창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벽과 마주 서서 아기가 춥지 않도록 감싸주려 하는 모

양이었으나 감싸줄 달게 하나 없었습니다. 마르틴이 방안에서 듣고 있으려니 여자가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마르틴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주머니를 집안으로 불렀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아줌마는 아무 것도 먹지를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가 운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마르틴은 딱한 처지에 놓인 이 아줌마에게 빵과 수프를 대접했습니다. 아줌마가 식사를 하는 동안 마르틴은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마르틴은 식사를 마친 아줌마에게 입을 옷가지와 돈도 주어서 보냈습니다.

여자가 버리자 마르틴은 수프를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 다시 일감을 잡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눈은 여전히 창 너머에 가 있었습니 다. 문득 바라보니 창가에 할매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할매는 사과가 담긴 바구니와 나무 부스레기가 든 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께가 아파서 다른 쪽 어깨에 바깥 메려고 자루를 한길 위에 내려놓고 사과와 바구니를 말뚝에 걸어 놓은 채 자루 속에 나무 부스레기를 추스른 다음 자루를 들어 올리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다

해진 모자를 쓴 사내아이가 뿔속 뛰어나와 바구니 속에서 사과 한 개를 훔쳐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옷소매를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개구쟁이는 마구 발바둥치며 할머니의 손을 뿌리쳐려고 했으나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사내아이의 모자를 벗기더니 머리칼을 움켜잡았습니다. 사내아이는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바늘을 어디다 찌러 놓을 겨를도 없이 마룻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문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층계에 발이 걸려 안경도 떨어뜨렸습니다. 마르틴이 한길로 뛰어나갔을 때 할머니는 사내아이의 머리칼을 잡고 욕을 하면서 경찰사로 가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사내아이는 죽을힘을 다하여 발바둥치면서 훌리지 않았다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할머니를 달래어 사나아이를
옹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사나아이에게는
도 할머니께 옹사를 빌도록 권했습니다.
다. 그리고 사나아이에게 사과를 사주었
습니다. 마르틴이 옹사에 대해서 예수
의 교훈을 말해주자 할머니는 사나아이를
놓아주었고 마르틴에게 사과 값 받는 것

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사내아이는 할머니와 가는 방향이 같았으므로 할머니의 집을 들어주었고 서로 사이 좋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버리자 마르틴은 집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안경을 주워 끼고 다시 일감을 잡고 일을 잘 마쳤습니다. 날이 어두워 등불을 켜고 일감을 치우고 정리한 다음에 벽장에서 성경을 꺼내어 어제 저녁에 읽던 곳을 펼쳐보았습니다. 성서를 펼치자 어젯저녁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꿈이 되살아나는 동시에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마르틴이 뒤를 돌아다보니 컴컴한 구석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확실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틴, 마르틴, 나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라고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날 말입니다. 아까 네가 만났던 노인은 나였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한 구석에서 스쩍빠라니가 앞으로 나오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형체도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들도 나였어.” 하고 목소리가 말했

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한구석에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미소를 짓고 아기가 빙그레 웃었다고 생각하자 곧 사라졌습니다. “이들도 바로 나였어.” 하고 목소리가 말했습니니다. 그러자 할머니와 사과를 가진 사내아이가 나와서 둘이 같이 빙그레 웃으며 마찬가지로 사라졌습니다.

마르틴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니 나에게 되겠은 때에 열쌍이었고 벗었은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35-37).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마르틴은 깨달았습니다. 꿈은 헛되지 않아 이날 어김없이 그리스도께서 마르틴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를 대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향유옥합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우리의 존재

1998년 이후 27년간 믿어온,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이론이 뒤집혔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는 오히려 우주 팽창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가 일정하다던 기존의 우주 모형, 초신성의 밝기로 측정했던 은하 거리, 과학자들이 확신했던 가속 팽창 이론, 모두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가속에서 감속으로 전환 중이며, 암흑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류가 27년간 믿어온 진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팽창하고, 수백억 년 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시공간 속에서, 고작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7년간의 연구도 한순간에 뒤집히는데, 수십억 년 우주의 섭리를 어

찌 감히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발전하고 이론은 진화하지만, 여전히 우주의 96%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00년도 안 되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한 줌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는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뜻은 피조물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한 지식이나 겸손한 회개이고, 자신만만한 이론이나 순종하는 믿음이며, 끝없는 탐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입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



주의 비밀을 다 알게 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
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
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 대화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
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
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4)

교회오빠

변함없는 이유

주자장을 방불하게 하는 차량들. 한 발 자국씩 내미는 걸음마처럼 지루함을 견뎌내며 나아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괜한 짜증을 내겠지만 이유 없이 그 대열에 선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위해 시작한 걸음들. 그 지루함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이유 없이 있는 걸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 따라 강남 걷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행동이나 삶에 분명한 이유나 신중함이 없이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암문 자손을 도와 다윗의 군대를 대항했던 아람 족속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임하는 이유라면 몇 푼 되지 않는 돈과 승승장구하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겠지요. 반면에 다윗에게 속한 군대, 즉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는 그 싸움의 이유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삼하10:12)

그들이 용사들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담
대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한 이유 있는 싸
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싸움
이기에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
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저들의 고백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결같이 시작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유리잔을 마주치며 외치지 않아도 변함 없는 삶의 이유입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는 우리 삶의 힘이기도 하지요. 여호와 **살람!** 창골산 봉목사



빛의 감수성과 민감함



이선중 지휘자

하나님은 암흑 천지에 빛을 일으킵니다. 천지창조에서 가장 첫번째 빛이 나오지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지어주어요. 요한 복음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주셨다 한 것은 태초에 만드신 그 빛을 최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빛이 결코 범상치 않은 인자인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 창조 목적에 빛이 있음을 드러내면서 빛이 단지 생명들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유기적 환경을 위해 만든 광명체만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고 경영하는 생명인자의 메타포로 삼습니다. 만드신 이의 뜻과 그 유언자에 모든 환경과 생명들을 움직이게 하는 빛이 지닌 파장과 그 운동성과 속도와 순

발력을 생명력 운행 전반을 꿰뚫고 지나가는 영감으로 느끼게 합니다. 빛은 생명 인자일 뿐 아니라 영향력이요 깨치는 힘이고 빛의 운행을 맡은 이의 능력이 비추임으로 그 모든 순간 신비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빛이 비치면 드디어 흑암의 공간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죽은 것을 살리고 산 것과 죽은 것을 드러내 산 것들이 가는 방향이 옳음을 지지하며 이때 영원한 시간을 보냅니다. 죽은 공간을 살려내고 멈추어 있는 시간을 흐르게 합니다. 운행 방향이 영원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암흑상자에 드디어 희미한 빛 하나로 모든 것이 살림이 되게 하는 운행의 힘이 드러납니다. 빛은 모든 존재의 사공간을 지각하게 하는 놀라운 눈의 씨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엔진을 켜시고 살

아 있어야 할 모든 생명들의 품과 놀이터와 생기를 주십니다. 이 생기는 또 다른 속내를 보게 하십니다. 빛이신 그 눈의 씨를 피조물 중 가장 고양된 인간 생명 안에 보내시고 보내신 이의 빛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이 삶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보아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빛의 씨눈으로 생명주신자의 의도와 어둠을 내몰고 그 자체가 순환하도록 빛으로 드러난 활동 영역 전반을 꿰뚫어 마침내 진행 방향에 함께 바라보게 바꾸셔서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영원한 생기를 주십니다. 하지만 빛의 역사는 항상 인간을 하나님의 진행 방향에 맞게 조준하였으나 인간은 빛으로 오신 뜻을 조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빛은 생명 지은 자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놀이터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 했으나 인간 생명은 서로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꾸는 빛의 역할을 따르지 못하고 빛을 굴절시켜 창조자를 끝내 이방인으로 몰아냅니다. 굴절된 빛은 인간에게 빛이 되어 죽음을 향해 소모해가는 유통기간이 정해진 물질적 질을 상회하지 못합니다. 인간 생명은 빛의 세계에서 죽음의 빛을 갇히려 살아가는 마침내 죽음이 예정된 찰라적 생명체에 불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빛이 지닌 영원한 시간을 받질못하니 영원의 생기가 없는 동물로 사는 것이지요. 마침내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빛을 태동한 처음 뜻과 진행 방향과 그 사명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련의 조치를 취합니다. 빛의 종가 맡아들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분리하여 완전한 생명인 영원한 생기로 가는 길로 여시고 그 문 앞에까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빛이 태동한 처음의 뜻을 다시 정조준하여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2022년 정월 오늘 우리가 맞는 그 빛은 그 아름답고 영롱한 영원한 생기로 완전한 생명을 담보하고 자신은 죽음으로 내던진 사랑의 바로 그 얼굴입니다. 빛은 우리의 수척한 육체를 뜨겁게 하고 그 분의 열기로 산 하나님으로 느끼며 배고픈 몸이 충만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육체의 숨입니다. 빛은 지체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습습한 비굴과 가난에 전격적

으로 드러내며 찾아오는 살아있는 영입입니다. 마음의 열이 살아있는 찬양자는 하나님의 운행과 그 살아계신 실제의 영을 숨으로 접촉합니다. 마음의 열과 감수성의 열기를 아는 지식에는 이처럼 자신의 열의를 부채질하는 내면 간구를 세밀히 살피는 작업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열의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열이 찾아가는 그 자의 감수성과 민감함 그리고 열의가 꽃피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선중 목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 / VKCC 지휘자

가나 혼인 잔치 속에 보이는 예배의 비밀들 2



조성환 목사

셋째로, 그 다음에 찾아볼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물을 채워 넣는 일이다. 즉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눈을 떼지 않는 예배의 모습 말이다. 기도만 하고, 혹은 바라기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방치하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0) 즉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는 작업이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다. 또한 물은 평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평범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것, 그때에 가장 필요했던 것, 또한 그러므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의 주일, 특별 절기 등등의 예배 순서를 짜며 항상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무언가 맛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막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준비하여 주님의 발 앞에 올려놓을 때, 그 물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기대가 되고 감사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포도주의 맛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 말이다. 이런 삶은 사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다음 구절에 나온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 2:11) 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런 기적을 행해주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보인 예배의 비밀들을 감사하며...

◆조성환 목사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5가지

1. 음악은 불유쾌한 소리나 감정을 가려준다.
예컨대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드릴의 그 불유쾌한 소리를 음악으로 감출 수가 있다. 바깥의 소음을 막기 위해서 집안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2. 음악은 뇌파를 느리게 낮출 수 있고, 원하는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다.
예컨대, 베타파로 할 것인가, 알파파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음악을 통해서 그 뇌파의 파장을 조정할 수 있다. 드보르작의 <산세계 교향곡>은 인간의 의식을 베타파에서 알파영역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민성과 안정감을 높여준다.
3. 음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호흡과 맥박, 혈압에도 영향을 준다.
호흡이야말로 리드미컬한 것이다. 대개는 1분간 25회에서 35회정도 호흡을 하는데 음악에 따라 호흡을 빨리 하게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한다. 깊고 느리게 하면 침착해지고, 감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주고, 사고를 더 깊이 해주며, 신진대사도 좋아진다. 얇고 빠른 호흡은 피상적이고 산만한 사고를 하게 하고, 사람을 충동적으로 만들며, 실수와 사고를 더 잘 저지르게 한다.
4. 음악은 체온에도 영향을 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리, 문이 “깡”하고 닫히는 소리 등을 들으면 오싹해지고,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추위를 느낄 때가 있다. 소리가 체온에 영향을 주는 사례이다.

5. 음악은 엔돌핀을 높여준다.
엔돌핀은 사람의 뇌에서 분비되는 마취제, 마약, 아편과 같은 호르몬이다. 엔돌핀은 통증을 줄여주는 일종의 “자연마약”이다. 영화음악, 종교음악, 행진악대, 북악상블 등은 사람들에게 마약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일선 참호에서 총질을 하고 있는 병사에게 군악대의 힘찬 행진곡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사라지게 한다. 임부가 분만할 때, 수술할 때 음악을 이용하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다. 음악이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병원이나, 학교, 관공서, 작업장 등이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음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찬양한표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검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히즈월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한남대 실레스트합창단, 제53회 ‘메시아’ 정기연주회 성료



실레스트합창단이 한남대 성지관에서 열린 제53회 정기연주회 '메시아'를 기념하여 촬영한 단체 사진. ©한남대

50년 전통의 합창단, 올해도 ‘메시아’로 무대 채워

한남대학교 실레스트합창단이 2025년 제53회 정기연주회 ‘메시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29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오세훈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전석 무료로 진행됐으며, 4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자리를 채웠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로 꾸며진 무대에는 재학생 단원들과 졸업 동문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해 웅장한 합창을 선보였다. 소프라노 김누리, 테너 김명규, 바리톤 이현승, 첼발로 최은하가 협연자로 나섰다. DCMF 신포니에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며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제로 한 헨델의 대표적 오라토리오다. 1971년 한남대 채플 성가대로 시작해 1973년 합창단으로 정식 창단된 실레스트합창단은 ‘하늘의 빛(celeste)’이라는 이름처럼 매년 ‘메시아’ 연주를 이어오고 있다. 백선영 기자

CTS, 창사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개최

CTS 임직원교계 지도자·정관계 인사·주한 외교사절 등 약 300명 참석

CTS가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가 창사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30년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CTS는 최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CTS 창사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열었다. 행사에는 CTS 임직원과 교계 지도자, 정관계 인사, 주한 외교사절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1부 감사예배는 CTS 대표 프로그램인 ‘7000마라톤’ 전기철 목사의 사회로 진행

됐다. 국내외 24개 CTS 지사 가수단의 입장을 시작으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문창국 총무의 개회기도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의 설교가 이어졌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기적(시 78:4-7)’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지난 30년간 숭한 위기 속에서도 CTS가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기적”이라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2부 순서에서는 CTS 공동대표이사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정홍 총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정 총회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오직 복음만 전해온 CTS가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선교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를 기대한다”며 “새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TS 김경철 회장은 “하나님께서



CTS 창사 30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함께 축하를 하고 있다. ©CTS 인도하신 CTS의 지난 30년은 한국교회의 눈물 어린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서른 살 청년이 된 CTS는 ‘순수복음방송’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음세대 사역과 아프리카 교육선교 등 세계 복음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지동 기자

서천성시화운동본부, 2025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개최

12월 13일 오후 3시 서천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2025 WAKE ME UP 밴드초청 공연

충남 서천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정진모 목사)가 오는 12월 13일 오후 3시 서천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2025 WAKE ME UP 밴드와 함께 하는 사랑나눔 찬양 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천성시화운동본부 주최하고 서천성시화운동본부 찬양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콘서트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서천군기독교연합회, 서천사랑통합케어센터가 후원한다. 또한 찬양사역자 황공주 권사의 진행과 서천성시화운동본부 연합찬양단이 특별출연한다.



WAKE ME UP 밴드 ©주최 측 제공 서천사랑장학회, 경찰선교회, 군부대교회, 미자립교회, 은퇴목사선교회, 탈북인선교회, 화재를 당한 화양중앙교회에서 섬김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본부장 정진모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복음전파와 사랑의 섬김과 실천사역을 하고 있다. 올해는 찬양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기관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만나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신정현강단(김관선)(984회) 30 TV강단 세한(주진)	10 C채널 스페셜 제1회 아가페국제교정 학술대회 1부 개회예배 40 성경 속 전경사-에피소드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대구변어-이지훈 30 생명의 말씀 동안-김형준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70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652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74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73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신약(6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계산재일-권요규 50 생명의 말씀 수지 기쁨의-김원태	10 조종민 목사의 답답답 20 사랑의 메시지 수원순복음(이요한) 50 비전설교 대한(윤영민)	30 휴먼넥트(59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6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2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8:00	20 원더풀우먼(9회)	20 신의 2수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197회)	00 하나님의 음성(99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96회) 민수기 12장	00 복음강단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한계시록 9장 송태근 목사	30 행복한 쉼터 아델포이(임동현)	0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26회) 40 Q&A 107 소요리문답(59회) 50 구약의 세계로 (오심소)(7회)	10 새롬게하소서(11035회) 이장원 배다해 부부 1부	00 글로벌 신앙토코스 왓츠업(40회) 결혼보다 동거? 4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2회)
	1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20 무빙 인 그레이스 김상인 목사 50 다음세대 돌봄, 한국교회가 한다	00 오 자유여!	20 크리스천 슈퍼맘(7회) 50 너담게-회복프로젝트(65회)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313회) 40 목사님 궁금해요(133회)	00 성경 속 전쟁사(1회) 모든 전쟁의 시작 3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오후	11:00	0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50 바이블 프로젝트	00 사랑의 메시지 전주완산(유병근) 30 사랑의 메시지 남서중앙(피종진)	1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물교회)(251회) 50 예수동행일기(4회)	00 율포원(690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93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3강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가!삼위일체 하나님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4회) 50 말씀의 창 포항동부교회 김영길 목사
	12:00	00 CTS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 경산중앙-김중원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316(박용배)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5회)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515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917회)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바른교회 조정현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풍성한-김성근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 내 영혼의 찬양 행복한 우체통	00 사랑의 메시지 안영생명나무(손명숙) 30 사랑의 메시지 창신성결(석진성)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39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4회)	2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2회)	3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389회) 50 지금 선교해YOU(30회)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318회)	00 말씀의 힘 우면동(정준경) 30 새롬게하소서(11370회) 손성락 전도사	20 믿음의 리액션(7회) 인천광역시
	15:00	4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회)(254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94회) 마태복음 7장	00 수영로교회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이규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신촌성결-박노훈	00 행복한 쉼터 소생(강복철) 30 행복한 쉼터 대구동신(문대원)	00 허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73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5회) 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론교회)(400회)	10 맨투맨 처치2(10회)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60회) 50 하나님의 음성(98회)	00 이석 목사의 월어바린 복음을 찾아서(235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저녁	17:00	00 생명의 말씀 새에단-소강석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신의 2수 10 감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4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608회)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1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63회) 50 영혼의 양식 수월제일(박성영)	00 말씀의 창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 소명중앙-김대성 30 TV찬양예배 만나교회	10 비전설교 대전태평(한상현) 40 더 깊은 울림 마커스 워십	10 2025 회복축제 <온전함>(24회) 50 2025 선교한국대회 <세상의 희망> 예수(3회)	0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30 신위의마를 예배 (김영준)(265회)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역 30 말씀의 창 엘드림교회 양병택 목사
	19:00	2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30 다니엘 기도회 이창우 장로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2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매일 주와 함께	(편성 없음)	20 만나나(4회) 30 TV강단 삼림(송태근)	00 비전메시지 광주새성안교회 김시은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404회) 김하나 목사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사 3부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 강남중앙-장찬형	40 GOODTV NEWS	20 THE NEW 하늘빛찾기(7회)	00 성령의 시대(18회) 50 CBS 교회소식(1027회)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50 복음강단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원더풀우먼(9회) 50 CTS뉴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갈보리교회의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96회) 민수기 12장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86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찾기(56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한계시록 9장 송태근 목사	30 사론의 꽃 필 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교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5회) 50 예수동행일기(4회)	00 CBS NEWS 10 20 CBS 스페셜 28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10회기 총회 주제 및 정책세미나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63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90회) 주운석 목사 두 번째 12강 인생 후반전의 믿음 : 인생의 결론 50 라바이즈 워십
	23:00	10 구지역 목사의 트롯 찬양교실(1회) 40 오마이갓생(6회)	30 이단 사이렌	10 RT. 캔달의 말씀과 성경(224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5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42회) 30 하나님의 음성(99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2회)	00 믿음의 리액션(7회) 인천광역시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24:00	00 Calling GOD(2389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명사들의 명강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THE NEW 하늘빛찾기(7회)	10 새롬게하소서(11035회) 이장원 배다해 부부 1부	0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예스스 구역
	1:00	00 무빙 인 그레이스 김상인 목사 30 이영훈목사의 힐링스토리 4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존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00 류영모 목사의 만난 이야기 10 조용기 목사 명설교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235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114회)	0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3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59회)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코스 : 차록(32회) 성경 속 화해 이야기 3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2:00	30 사인사색 김복유 가수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399회)	30 TV강단 강남중앙침례(최병락)	00 THE 공금(40회) 치유와 도우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26회)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요한계시록 9장 송태근 목사 50 위대한 발견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198회)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37회)	00 율포원(689회)	00 오직주님 영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박중순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10 생명양식 대일리뷰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양병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231회)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95회) 창세기 4장 50 CBS 교회소식(1027회)	00 클래식 말씀의 창(1회) 김선도 목사 3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7부

LG와 함께할 가슴 뛰는 미래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쓰는 미래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